

한양대학교의료원 매거진

Vol.155 2019 January / February

Special theme

새로운 시작,
건강한 일상을 처방하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변함없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현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 경 현



4차 산업혁명시대의 또 다른 말은 초연결사회입니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삶이 더 편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기술의 발달이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어디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하죠.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코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신의 균형을 위해선 무엇보다 중심 근육이 탄탄해야 하나까요. 그리고 그 중심은 우리 삶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힘, 초연결사회의 문턱인 2019년의 새해에는 그 힘을 기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보다 건강한 삶을 계획하시길 바라는 진심을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에 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건강한 일상을 처방하다’는 주제 아래 금연·금주, 체중 관리 및 운동, 그리고 건강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도록 신년 계획의 길잡이 정보를 모았습니다. 건강은 평범한 하루를 어떻게 계획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양토픽에는 리모델링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만성통증센터 소식을 있습니다. 만성통증센터를 통해 밤낮으로 고통 받는 환자분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랍니다. 한편 이번 러브라이프에는 의료 소외지역인 몽골의 한 생명을 살리고자 물심양면으로 도운 한양대학교병원 구성원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한 아이의 숨결뿐 아니라 한 가족, 한 지역사회에 훈풍을 불어넣는 힘이 바로 의사로서의 소명이자 의료원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생각 해봅니다.

2019년은 황금돼지 해입니다. 예로부터 돼지는 행운과 재물의 상징이었는데, 올해는 황금의 기운까지 더해져 더욱 기대가 됩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평온하시길, 지난해보다 꼭 한 가지 더 좋은 일이 생기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언제나 한결같이 그 옆을 지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Vol.155 2019 January / February

365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양대학교의료원

새로운 시작, 건강한 일상을 처방하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반드시!”를 외치며 ‘금연’, ‘다이어트’, ‘운동’ 등의 새해 계획을 세우지만, 대개는 작심삼일에 그치고 만다. 이는 우리 삶에 작용하는 ‘관성’ 때문으로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큰 동기나 자극, 혹은 도움이 필요하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은 2019년 새해를 맞아 독자들이 보다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모았다.



Contents

02	즐거운 편지	변함없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이 되겠습니다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지용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08	Love, Life	한양대학교병원 의료진의 몽골 환자 치료 지원

14	Special theme ①	멈출 수 없는 유혹, 중독을 이기는 힘
16	Special theme ②	행복한 다이어트로 만드는 건강한 체중
18	Special theme ③	근감소증 예방하고 삶의 활력 높이는, 운동
20	Special theme ④	즐거운 해외여행의 시작과 끝, 예방접종

22	Hanyang Topic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만성통증센터
26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드라마 〈뷰티 인사이드〉와 안면실인증
28	베스트 파트너	한양대학교병원 협력기관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30	Dr. Opera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오페라 〈엘렉트라〉
32	Dr. Movie	30년의 세월을 거스르는 여전한 감동의 이야기
34	예술과 의학의 만남	위대한 관찰자는 외사시 환자?
36	오늘의 건강강좌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과 치료
37	Hanyang News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외
40	언론 속 한양인	
42	발전기금	
46	한양캘린더	
47	외래 진료 시간표	



발행처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홍보팀 02-2290-9532~6
발행일 2019년 1월 4일 통권 155호 **발행인** 김경현 **편집인** 이항락 **편집위원** 대외협력위원회
기획편집 손화선 **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에서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학이념을 담아 격월간으로 펴내는 매거진입니다. 홈페이지 www.hyumc.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 수령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의 '喜怒哀樂'.
의사로 살아가는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생명을 살리는 '숨'에 귀 기울이다

문지용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종종 사람들은 '숨'을 '생명'에 비유한다. 삶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 한 사람의 호흡도 멈춰 버리므로. 생사가 오가는 의료 현장 속에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중에도 호흡은 계속된다. 그렇기에 호흡기내과는 삶을 넘어 삶의 질까지 고민한다. 문지용 교수는 우리 삶 모든 순간 속의 환자들을 만나고 있다. 글. 정라희 사진. 강권신





환자들의 고통에 온전히 공감하기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따금 멀게만 느껴졌던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다. 바로 같은 경험을 공유했을 때다. 문지용 교수가 진료를 결정할 때 호흡기내과를 첫손에 꼽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사실 그는 어린 시절 소아천식을 앓은 경험이 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맞닥뜨린 질환의 벽. 얼마간은 입원해야 했을 만큼 증상도 다소 중한 편이었다.

“천식의 특징은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호흡 곤란이 일어나면 제대로 숨을 쉬기 힘들죠.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숨이 잘 안 쉬어질 때의 공포감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소아천식의 경우, 절반 정도의 환자는 성장하면서 증상이 상당 부분 좋아진다. 문지용 교수 역시 지금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당시 경험은 환자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양분이 됐다. 천식은 그의 주요 전문 분야 중 하나다.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하는 진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린 시절 경험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지만, 호흡기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람이 숨을 쉬지 않을 때 유명을 달리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병원에서 가장 마지막 순간에 찾는 곳이 바로 호흡기내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호흡기내과의 중요성을 느꼈죠.”

병원의 최종 수비수 역할의 진료과,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최전선에서 움직인 사람들이 바로 호흡기내과 의사였다. 물론 현재 그의 전문 분야와는 차이가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음지에서 맹활약하는 호흡기내과 의사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나빠지지 않게, 더 나아질 수 있게

호흡기내과는 숨을 쉬는 기관지와 폐 그리고 해당 장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환을 진료하고 연구하는 곳이다. 그중 문지용 교수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질환은 일명 ‘만성 폐쇄성폐질환’이라고 일컫는 COPD(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다. 천식과 유사하게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 등의 기도 질환 증상이 나타나지만 자칫하면 폐 기능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병명부터 낯설고 어려워 다른 사람 일로 여기고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COPD는 전 세계 사망원인 중 4위를 차지하는 질환입니다. 고령화로 노령인구가 많아지며 COPD 환자 역시 늘고 있습니다.”

COPD의 주요 위험인자는 흡연. 오늘날 노령인구는 과거부터 흡연해온 경우가 많은 데다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낮아 증상이 나타나도 병을 간과하는 사례가 많다. 비흡연자라고 해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대기오염 등 폐 기능을 떨어트리는 외부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숨이 차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지 않아요. 게다가 폐 기능 검사는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견딜 만하다는 이유로 진단과 치료를 미루다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금연’이다. 때문에 진료실에서 그는 자주 잔소리꾼이 된다.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운동을 해야 해요” 같은 당연한 조언도 반복한다. 환자가 듣기 좋은 말은 아닐지라도, 환자들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대학병원에 있는 만큼 연구를 미룰 수는 없기에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캐나다 밴쿠버에서 연수를 받았다. UBC 산하 연구소에 있으면서 COPD와 관련한 진료 상황과 진료 조건 등을 탐구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당시 경험은 연구의 전문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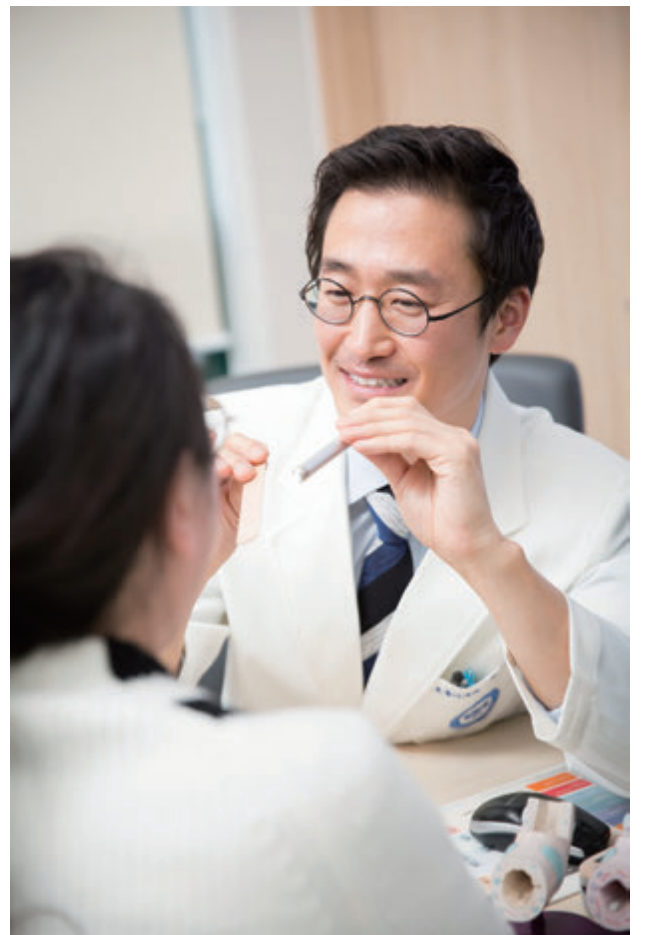
무엇보다 중요한 환자의 목소리

COPD는 완치 개념이 없는 만성질환이지만 신경 써서 관리하면 평범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치료에 필요한 흡입기와 약제가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증상이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약물치료만큼 비약물적인 치료도 중요하다. 그러자면 환자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병을 알아내기 위해 하는 문진이 일상적인 대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환자를 생각하면 시간이 아쉽지만, 가끔은 환자가 별생각 없이 툭 던지는 말 속에 ‘힌트’가 숨어 있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호흡기 질환 외에 다른 불편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일례로 COPD 환자들은 불안이 많거든요. 흡연자가 많아 심장질환이 동반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나 심장내과에 진료 의뢰를 하는 일도 생깁니다.”

현재 그의 소명은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는 일이다. 노령환자가 많은 만큼 했던 말을 반복해서 할 때가 많지만, 언제나 환자의 말에 공감하려고 노력한다. 그 덕분일까. 문지용 교수에게 진료를 받고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항상 사람 좋은 미소를 짓지만, 의사로서의 원칙은 분명하다. 진단도 치료도 환자와 직접 소통하며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호자들이 의사 결정을 하는 일이 많아요. 폐암처럼 중한 병은 보호자들이 환자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하는 진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영화를 보면 사람이 숨을 쉬지 않을 때 유명을 달리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병원에서 가장 마지막 순간에 찾는 곳이 바로 호흡기내과입니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병의 예후를 직접 설명하고 치료 방법도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죠.”

호흡기내과 전문의로 살아온 지 10년. 수많은 환자의 생로 병사를 지켜보면서 그는 생명의 신비를 새삼 깨달았다고 전한다. 그래서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수명을 연장하는 환자들 앞에서 하는 한 마디에도 예의를 다하려고 한다. 사람을 진정으로 숨 쉬게 하는 것은 ‘희망’이기에. 그렇게 문지용 교수는 오늘도 환자들의 숨소리 하나에 관심의 촉을 세우고 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안팎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합니다.

너와 나, 두 개의 손이 만나면

한양대학교병원 의료진의 몽골 환아 치료 지원

가난한 이웃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물질의 빈곤뿐이 아니다.
때론 사랑의 빈곤이 그들을 더 움츠러들게 만든다.
한양대학교병원 의료진은 그들을 위한 사랑을 담아 의료혜
택에서 소외된 지구촌 이웃에게 보냈다. 이유는 간단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의사의 길”이었단다. 한 줄기 희망이 한 생
명과 그 주변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알기에, 맞잡은 의사
의 두 손은 못 할 일이 없었다. 글. 윤진아 사진. 김지원



손 내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8년 11월 2일 오전, 소아병동에 반가운 얼굴들이 모였다. 이날은 몽골에서 온 불가마(G.Bulgamaa, 여·5세)가 수술과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퇴원하는 날이었다. 검사부터 수술과 치료, 간호, 행정 지원 등 각자의 위치에서 사랑을 모아준 한양대학교병원 임직원들이 속속 병실을 찾아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낸 환아를 격려했다.

아이의 심장 박동이 가슴으로 느껴졌다. 여느 아이들과 다를 것 없이 건강했던 불가마는 2015년 인도에서 무료 심장수술을 받은 후 앞을 보지도, 먹지도, 걷지도 못하게 됐다. 머나먼 한국 땅을 찾아와 영겁 같던 수술 시간을 보내고 그보다 더 오랜 회복 시간이 지나고서, 주치의는 “불가마가 잘 견뎌주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 말에 엄마 어트정보양트(33세) 씨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제야 정말 ‘이제 살았구나!’ 실감이 났단다.

“아프기 전 불가마는 푹푹하고 활발한 아이였어요. 방금 주치의 선생님이 한 번 더 보셨는데, 수술경과가 좋고 회복도 잘 되고 있다고 해요. 이제 불가마가 혼자 걸을 수 있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일을 통해 우리 가족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걸, 세상엔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몽골로 돌아가면 불가마의 오빠와 언니에게도 사랑을 나누며 사는 법을 가르칠게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족 모두 평생 노력하겠습니다.”





아프기 전 불가마는 뚝뚝하고 활발한 아이였어요. 방금 주치의 선생님이 한 번 더 보셨는데, 수술경과가 좋고 회복도 잘 되고 있다고 해요. 이제 불가마가 혼자 걸을 수 있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일을 통해 우리 가족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걸, 세상엔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인술을 향해 몇 걸음 더

매년 여름 몽골에서 의료봉사를 해오고 있는 신경과 김희진 교수는 올 여름 현지 무료진료소에서 불가마를 처음 만났다. 나이에 비해 무척 왜소했고, 독한 약물로 인해 의식은 더 처진 상태였다. 김 교수는 눈도 뜨지 못한 채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한 없이 기다리던 어머니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환아는 3년 전 심장벽 결손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합병증으로 뇌 안에 물이 차는 뇌실확장증이 발생해 죽음의 문턱까지 이른 상태였어요. 몽골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귀국 후 지원단체를 알아보던 중,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돼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오셨죠.” 한양대학교병원 의료진의 시제도 급박하게 돌아갔다. 영상의학과 이영준·이지영 교수가 뇌 MRI 검사를, 진단검사의학과 김영은 교수가 혈액검사를, 소아청소년과 김남수 교수가 심장초음파 검사를, 이현주 교수가 발달상태를 점검했고, 신경외과 이형중 교수 등 여러 의료진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뇌실 셉트 수술’이 아이의 생명을 구할 마지막 방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

다. 지체하지 않고 마취과 김동원 교수, 신경외과 이형중 교수와 외과 안병규 교수의 집도로 수술이 이루어졌다. 이튿날부터 불가마는 다시 간단한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됐다. 팔다리도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됐다. 수술 이후에는 소아청소년과 김종덕 교수가 주치의를 맡아 환아의 차도를 살폈다. 소아청소년과 설인준 교수는 불가마의 경기 증상까지 잡아줘 엄마를 행복하게 했다.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기적

불가마의 증상은 나날이 좋아졌지만, 고액의 병원비라는 큰 산이 남아 있었다. 다행히 한양대학교병원 진문일 목사의 협조로 광림교회와 광림의료선교회에서 치료비 지원을 확정했고, 외과 정민성 교수를 주축으로 한양대학교병원 기독교수의사회도 지원에 나섰다. 뒤이어 안동현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한양발달의학센터가 치료비 지원에 나섰고, 사회복지팀 성명순 파트장도 불가마를 도울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했다.



뿐만 아니었다. 기독교사회인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가 치료비 지원 요청에 앞장섰고, 이에 공감한 이광현 병원장과 김혁 부원장은 선뜻 치료비 감액을 결정했다. 덕분에 치료비뿐만 아니라 한국 체류비와 외래 진료비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김희진 교수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아가 급박하게 들어왔고, 관망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수술 케이스라서 지원단체를 찾기가 어려웠다”며 “의료적인 측면에서도, 뇌의 상당 부분에 이미 손상이 진행돼 수술 전후 사망 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악조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어려운 수술에 기꺼이 나서주신 신경외과 이형중 교수님, 외과 안병규 교수님, 마취과 김동원 교수님 이하 마취과 스텝진, 수술 전후 환아를 세심하게 보살펴주신 소아청소년과 김남수, 설인준, 이현주, 김종덕 교수님과 간호팀이 없었다면 오늘의 건강한 아이는 없었을 거예요. 불가마는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 의료봉사 땀 몽골에서 한층 건강한 모습의 불가마를 만날 수 있기를, 조금 더 욕심을 내어본다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 몽골을 밝히는 등대가 되길 바랍니다.”

이름 모를 한국의 의사들이 뿌려준 작은 씨앗을, 몽골 소녀 불가마도 하루하루 튼실하게 열매로 맺어갈 터다. 앞으로 또 어떤 꿈 많은 아이가 한양대학교병원 의료진이 내민 손을 맞잡고 생명을 되찾아 세상을 환히 빛낼지, 지켜볼 만한 일이다.☺

Mini interview



신경과 김희진 교수

어려운 부탁이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케이스였음에도, 주저하지 않고 도와주신 교직원들이 가슴 빠근할 정도로 자랑스러워요. 한양대학교병원을 통해 불가마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몽골 땅에서 또다른 선한 영향력으로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소아청소년과 김종덕 교수

환아는 뇌병변으로 인한 발달 지연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경련이나 흡인성 폐렴 발생 위험도 높습니다. 퇴원 후에도 약제를 복용하며 외래진료를 통해 지속적인 재평가가 필요한데, 환아와 보호자가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어 희망이 보입니다.



외과 정민성 교수

한양대학교의료원 기독교사회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주저함없이 흔쾌히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술과 치료로 놀라운 만큼 회복된 불가마와 가족들,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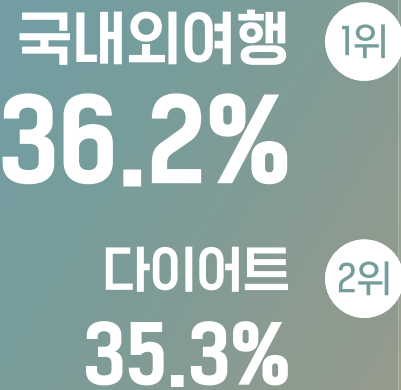
새로운 시작, 건강한 일상을 처방하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계획을 세운다. “올해는 반드시!”라는 말 뒤에 ‘금연’, ‘다이어트’, ‘자기계발’, ‘이직’, ‘운동’ 등의 다양한 계획을 덧붙여보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는 작심삼일에 그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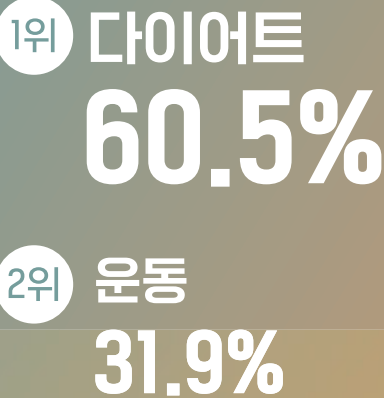


*출처: 잡코리아·알바몬이 20세 이상 성인남여 2,403명을 대상으로 ‘새해 계획’ 주제 설문조사 실시(2018년)

직장인이 꼽은
새해 계획은?



매번 실패하면서도
다시 세우는 단골 새해 계획은?



흡연 직장인 10명 중 8명이 금연 계획

금연을 계획하는 이유 중 80.7%는 건강관리

*출처: 잡코리아가 흡연 직장인 4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2018년)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새해를 맞아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알아봤다.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가 사이트 접속자를 대상으로 ‘새해 계획’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바 있었다. 응답자 가운데 71.9%가 새해 계획을 세웠다고 답했으며 직장인 가운데 36.2%(1위)가 국내외여행, 35.5%(2위)가 다이어트를 꼽았다. 이어 ‘실패하면서도 매번 세우는 단골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1위가 다이어트, 2위가 운동이었다. 또 직장인 7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흡연 중이라고 응답한 52%의 응답자 가운데, 84.2%가 금연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그 대표적인 이유는 건강관리였다.

한편 새해 계획의 유효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3월이면 흐지부지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34.4%), 이어 ‘1월도 안 돼서 무너지다’(26.9%), ‘작심삼일(15.9%)’이 뒤를 이었다. ‘유효기간 없이 일년 동안 꾸준히 실천한다’는 비율은 7.3%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지 못할까.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개념 가운데 ‘관성’이라는 것이 있다. 물체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거나, 힘을 받는다 해도 움직임을 유지해온 힘과 함께 합해 0에 수렴하면 기존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인데, 이는 우리 일상에도 적용된다. 사회나 개인 역시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고자 하며, 웬만한 자극 없이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살던 대로 사는 게 편하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은 2019년 새해를 맞아, 건강을 해치는 일상의 관성들을 멈추고자 머리를 맞댔다. 각종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삶을 계획한다면 여기에 주목해보자.

온라인에서 새해 계획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출처: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분석 업체 다음소프트가 1달 동안 새해 관련 빅데이터 분석(2017.12.1일부터 2018.1.4까지 진행, 2018년 발표, 2위는 공부)



멈출 수 없는 유혹, 중독을 이기는 힘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욕구를 참지 못하는 강박적인 행동을 우리는 ‘중독’이라 부른다. 중독은 알코올, 담배와 같은 ‘물질’에 빠져드는 물질 중독과 도박, 게임, 스마트폰 같은 ‘행위’에 빠져드는 행위 중독으로 나뉜다. 의학적 개념에서의 중독은 술, 담배 등의 물질을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사용하여 사회활동, 대인관계, 직업기능에 지장을 주는 경우다. 중독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기 전까지는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술도 지나치게 마시면 병이다!

술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현재에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마시게 되는 술. 하지만 지나치면 몸과 마음에 병을 만든다. 특히 술을 마실 때 ‘절제가 안 된다’면 알코올중독을 의심해봐야 한다. 가장 간단하게 알코올중독을 선별하는 방법은 다음 4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보는 것이다.

- 1. 술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 2. 당신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귀찮은 적이 있었나요? 예/아니오
- 3. 자신의 음주 때문에 자책한 적이 있나요? 예/아니오
- 4.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숙취를 없애려고 해장술을 마신 적이 있나요? 예/아니오

두 개 이상 ‘예’라고 대답했다면 알코올중독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한다.

올해도 금연은 작심삼일?

담배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 수많은 질병과 사망의 원인이다. 그러나 끊는 것이 쉽지 않다. 담배는 마약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나온 수많은 중독물질 중에 중독성이 세 번째로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애연가들은 담배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을 때 경험하는 불안, 초조, 짜증, 집중력 감퇴, 우울 등의 증상은 대표적인 금단증상들로 담배를 끊은 지 2~3일에 정점을 이룬다. 그래서 3일째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된다. 이것이 금연이 작심삼일인 이유다. 이때 담배를 피우면 이런 금단증상들이 사라지거나 줄어드는데, 흡연자들은 이것을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다. 금연을 유지할 수록 스트레스의 정도는 수개월간 서서히 줄어든다. 담배중독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첫 담배를 피우십니까?
5분 이내(3점)/6~30분 사이(2점)/31~60분 사이(1점)/60분 이후(0점)
- 2. 하루에 담배를 몇 개비나 피우십니까?
10개비 이하(0점)/11~20개비(1점)/21~30개비(2점)/31개비 이상(3점)

점수의 합이 4점 이상이면 니코틴 의존도가 높다고 평가한다. 이 점수로 향후 금연성공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즉, 4점 이상이면 금연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홀로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은 3~5%이지만,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성공확률이 6~10배 높아진다.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한 나, 혹시 나도 중독일까?

우리 삶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행위 중독 중 하나는 스마트폰이다. 2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동(3~9세)의 17.9%, 청소년(10~19세)의 30.6%, 성인(20~59세)의 16.1%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척도로 자가 테스트를 해보자.

스마트폰 중독 척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1.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2.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3.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4.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5.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6.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7.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8.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9.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10.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성인의 경우 24~28점이면 스마트폰 중독의 잠재적 위험군, 29점 이상은 고위험군에 해당된다. 청소년은 23~30점이 잠재적 위험군, 31점 이상이 고위험군이다. 잠재적 위험군은 조절력이 약화된 상태로 대인관계 갈등이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다. 스스로 절제를 위한 노력을 해보고 잘 개선되지 않으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고위험군은 통제력을 상실하여 대인관계, 일상생활, 건강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다. 전문가를 찾아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중독은 소리 없이 찾아오지만 조용히 물러가지는 않는다. 병적인 상태가 되었다면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중독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치료는 자신이 중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 한번 중독되면 평생을 노력해야 할 만큼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최선의 치료는 역시 ‘예방’이다. 평소 술을 지나치지 않도록 마시고 금연하며, 인터넷 사용을 절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을 땐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는 것이 지름길이다. 📞

글. 노성원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행복한 다이어트로 만드는 건강한 체중

우리나라 남성의 3분의 1, 여성의 4분의 1이 비만에 해당된다고 한다. 비만으로 체중이 증가할수록 사망률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도 증가한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축적되는 경우를 말한다.



글. 황환식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맞춤형비만치료센터

배부른 다이어트가 성공한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보통 “운동을 하고 밥을 적게 먹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저도 아는데요”라고 말한다. 하지만 잘못된 지식 때문에 체중감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운동만으로는 살을 뺄 수가 없다. 등산을 매일 2시간씩 해도 산을 내려와서 막걸리 두 잔에 파전 4분의 1쪽만 먹어도 체중에는 변화가 없게 된다. 또 밥 반 공기의 칼로리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15분가량 조깅을 하거나 줄넘기를 해야만 한다. 평생 날씬하고 싶다면 다이어트의 방법을 바꿔야 한다.

다이어트로 인해 배가 고픈다면 그 방법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평생 배고프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의 종류를 바꾸는 것. 음식을 먹더라도 칼로리가 낮고 배가 부른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방울토마토, 닭 가슴살, 채소류, 물, 우유 등이다. 하루 세 끼를 먹는다면 밥이나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의 양을 절반 정도로 줄이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위에서 언급한, 칼로리가 낮고 배는 부른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즉, 배가 고플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우리 몸 속 지방은 대부분 섭취한 탄수화물이 남아 지방으로 축적되며 만들어진다.

다이어트 중에는 단백질을 양껏 먹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여성들에게 더 그렇다. 단백질은 소화흡수 과정에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근육 합성을 도와서 기초대사량을 올려준다. 그리고 포만감을 느끼게 만들어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데 효과가 크다.

한편 술은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술 자체 칼로리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소주 한 병은 공기밥 두 공기, 맥주 500cc는 한 공기 정도 된다. 양주로 부르는 고도수의 술은 칼로리도 높다. 무엇보다 술과 곁들이는 안주는 대부분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는 당분간 술을 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만약 다이어트 초기에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 힘들다면 약물요법을 같이 실행해 볼 수 있다. 그러나 3개월 정도 약을 먹어도 5% 이상 체중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그만 먹는 것이 좋다.

* 표준체중 측정법

표준체중이란 각 개인의 키에 적당한 체중을 말한다. 적절한 표준체중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장과 체중으로 계산하는 것. 표준체중에서 몇 %나 더 나가느냐를 나타내는 것을 비만도(%)라고 한다. 정상체중은 표준체중의 10%를 말하고 표준체중보다 10~20%가 초과할 경우 과체중(비만도가 110~120%), 20% 이상이 초과할 경우 비만(비만도가 120% 이상)이라고 한다.

신장	공식
〉 160 cm	[신장(cm)-100]× 0.9
160~150 cm	[신장(cm)-150]÷ 2 + 50
〈 150 cm	[신장(cm)-100]× 1.0

* 체질량지수 측정법(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는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예) 몸무게 75kg, 키 170cm(1.7m) : 75/(1.7)
= 26

일반적으로 체질량지수가 23 이상인 경우를 과체중, 25 이상인 경우를 비만이라고 한다. 근육량이 많은 운동선수, 임산부, 어린이 및 쇠약한 노인에게는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임상적으로 평가를 한다.

운동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처음부터 운동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허기를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던 운동이 있다면 계속하면 된다. 마땅히 하는 운동이 없는 이라면 다이어트 시작 한 달 뒤부터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운동은 우선 재미있어야 하고 매일매일 쉽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일상생활의 일부여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시키는 편이 좋다. 조깅이나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대표적이다. 일주일에 4~5회 정도 하면 좋다.

일부 저체중인 사람들 중에는 체중을 늘리고자 식사량을 늘리는 이들이 가끔 있다. 하지만 식사량을 늘린다고 근육이 느는 것이 아니며 지방이 느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운 체중 증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체중인 경우에는 근육을 키워 체중을 늘리는 것을 권한다. 단백질 섭취를 적절히 하며 근육 운동을 포함한 운동을 하면 체중과 근육량은 물론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고 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다.

비만 치료의 종류와 제한

비만의 정도가 심한 경우 혹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효과를 보기 힘든 경우, 비만에 따른 성인병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 치료센터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편이 좋다.

비만 치료는 위에서 언급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약물요법, 인지행동요법 그리고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임신이나 정신질환, 불안정한 의학적 상태가 있는 환자들은 비만 치료를 일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담석증,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들도 비만 치료로 인해 병이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고, 식사장애가 있거나 말기 질환에 있는 이들 역시 비만 치료를 하면 안 된다.🏥

근감소증 예방하고 삶의 활력 높이는, 운동

우리 몸의 45%를 차지하는 근육은 뼈와 뼈를 지탱하여 몸을 움직이게 하고 신체의 각 기관을 보호한다. 근육이 없다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고 작은 충격에도 큰 부상을 입게 되며, 체내에 남은 영양분을 해결하지 못해 각종 만성질환에 걸리게 된다. 다행히 근육은 우리 몸의 기초 조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30대부터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노인의 경우 그 속도는 급격히 빨라진다. 실제로 50~70대에는 10~15%, 70~80세에는 30% 이상의 근육이 감소하게 된다.



근감소증을 예방해야 하는 이유

근감소증은 기초대사율을 저하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발생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은 다시 근감소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 노인성 근감소증은 고혈압을 유발하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3~5배 증가시켜 사망률을 높이기도 하며, 낙상과 이에 따른 고관절 골절의 위험을 높인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적절한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노인성 근감소증은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내분비장애, 염증성 질환, 당뇨와 고지혈증을 포함한 대사질환, 기타 만성질환, 신체활동의 저하 혹은 영양 불량 등과 같이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글. **한승훈**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재활의학과



운동의 중요성과 올바른 운동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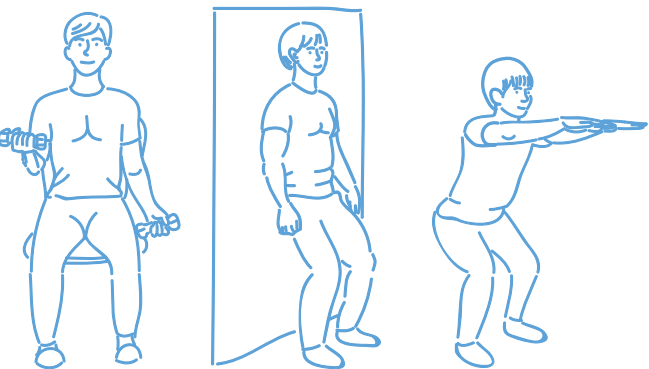
노인성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적절한 운동 외에는 그 효과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면 근력과 근육량이 증가한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력강화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포함한 복합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30분 이상의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운동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는 것이 좋으며, 운동 강도는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게 좋다.

- **몸 풀기 및 스트레칭:** 5~10분간 가벼운 강도의 유산소 운동
- **본 운동:** 20~60분간 유산소, 근력, 스포츠 활동 등 시행
- **마무리 운동:** 5~10분간 가벼운 강도 유산소 운동
- **스트레칭:** 10분간 스트레칭 운동

또한, 각 운동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근력 강화 운동

- **빈도:** 1주일에 2회 이상
- **종류:** 다양한 상하지 근력 운동
- **강도 및 횟수:** 8~12회 반복할 수 있는 중량 운동을 1~3회 시행
- 운동 강도는 점진적으로 증가



유산소 운동

- **빈도:** 1주일에 3~5회
- **종류:** 걷기, 사이클, 수영, 수영장에서 걷기(관절염 등이 있을 경우는 수영장에서 걷기와 같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 **강도:** 약간 숨이 차서 말은 가능해도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의 강도로 시행
- 고강도 운동의 시행도 좋으나, 심장 기능 등이 고강도 운동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



스트레칭

- **빈도:** 1주일에 2회 이상
- 스트레칭은 느린 속도로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시행



노인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병력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진료 및 검사를 시행 후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뇨 환자의 경우 운동 후에 저혈당 증상이 올 수 있으므로, 운동 30분 전에 탄수화물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운동 시간이 길어질 경우 탄수화물을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 한 다른 사람과 함께 운동을 하는 것을 권한다.👥

즐거운 해외여행의 시작과 끝, 예방접종

여행이 주는 즐거움만큼 건강과 안전도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여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도 2017년 한 해에 2,500만 명이 출국했을 만큼 해외여행은 일상화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외유입 감염병도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7년 529건의 감염병이 신고되었다. 뎅기열, 말라리아,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A형 간염 순이었다. 대개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통해 전파되는 수인성 감염병과 모기 매개의 감염병이 주를 이뤘다.

동남아시아 방문 시 개인위생에 신경 써야

원주민은 풍토병에 면역력을 지니고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즐겨 찾는 동남아시아 국가인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라오스 그리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남미 국가 등 열대 지방 개발도상국을 방문할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파되는 질환이다. 콜레라와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의 경우 공통적으로 설사와 발열(콜레라는 없을 수도 있다)을 유발하며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심한 탈수와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다. 비교적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등을 여행할 때는 예방접종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여행 중에는 비위생적인 길거리 음식은 가급적 피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예방접종증명서 요구하는 국가 여행 시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방문해야

황열은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질환으로 발열, 두통, 황달, 근육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간, 신장 등 장기 손상을 나타내거나 사망에 이르는 중증사례가 20~50%로 높은 편이다. 사하라사막 남쪽 아프리카나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남미 열대 지방을 여행할 때 주의가 필요하며, 이들 국가에서는 입국 시 황열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막알균 뇌수막염은 수막알균(Neisseria meningitides) 보균자와 접촉할 때 발병할 수 있는데 발병인의 10~15%가 중증 패혈증으로 사망하며 생존자의 20%에서 청력 손실, 사지마비를 포함한 뇌 손상의 후유증이 발생한다. 세네갈, 나이지리아, 카메룬, 에티오피아 등을 포함하는 중부 아프리카의 ‘수막염 벨트 지역’을 여행할 때는 수막알균 백신이 필요하며, 이슬람 성지 순례 기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수막알균 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하다.



글. 김봉영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감염내과



해외여행자에게 권장하는 성인예방접종 입국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예방접종

황열	아프리카와 중남미 황열 발생지역 중 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	1회
수막알균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	1회, 결합백신은 5년마다 재접종

개발도상국 여행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예방접종			
A형 간염	개발도상국 모든 국가	면역이 없는 모든 여행객	2회
장티푸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2주 이상 여행하거나 시골을 여행하는 사람	1회, 2년마다 재접종
수막알균 수두	아프리카 중부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선교 또는 의료봉사	1회, 5년 후 재접종
홍역-풍진-볼거리	개발도상국 모든 국가	면역이 없는 일부 30대 이하 여행객	항체 검사 필요
광견병	남아메리카, 멕시코, 아시아	동물 연구, 1개월 이상 시골 여행하거나 봉사활동자	항체 검사 불필요
황열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황열 발생지역	정글 탐험가	1회
폴리오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스탄, 나이지리아 포함 아프리카	40세 이상 성인, 시골여행자	1회
인플루엔자	남반구	여름에 여행하는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1회

통상의 관광 여행이 아닌 경우 추가되는 예방접종			
진드기 매개 뇌염	러시아, 동유럽	삼림에서 여름에 활동 시	국내에 백신 없음
콜레라		난민보호소에서 봉사활동 할 경우	경구 불활화 백신(듀코탈)이 선호됨

* 해당 권장표와 변경사항은 대한감염학회 웹사이트(www.ksid.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는 전국 38개(수도권 26개) 기관에서 예방접종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콜레라 백신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매주 수, 목요일 오후에 감염내과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당일에 발급받을 수 있다.

말라리아는 예방을 위한 백신이 존재하지 않지만 여행 전후 예방약 복용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다.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열대열 말라리아의 경우 국내의 삼일열 말라리아와 다르게 뇌염, 사망 등 중증 경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여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 예방약을 처방 받도록 한다. 위험지역으로는 동남아나 아프리카를 포함한 대부분의 열대지역에 위치한 국가가 해당되며, 지역에 따라 말라리아 원충의 약제 내성률이 다르기 때문에 복용해야 하는 예방약이 다르다. 일부 약제는 출발 1주일 전에 복용을 시작해야 한다.

감염병 주의국가 여행 시 출국 3~4주 전, 상담 필요

대개 예방접종 후 2주가 지나야 항체가 충분히 형성된다. 따라서 건강한 여행을 위해서는 출국 3~4주 전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백신이나 예방약을 복용했다고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상치 못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조리한 음식물을 섭취하고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에 신경 쓰며 긴 옷 착용이나 모기 기피제 등을 사용해서 모기에 물리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가의 감염병과 예방접종 정보는 질병관리본부의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에는 황열, 일본뇌염, 수막알균 뇌수막염, A형 간염, 콜레라, 장티푸스, 폴리오(소아마비), 광견병 등이 있다.📍

앞서가는 의술을 펼치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핫이슈를 소개합니다.



만성통증 환자를 위한 최선의 시너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만성통증센터

인간은 누구든 신체적 아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통은 물론, 매일 이겨내야 하는 통증을 감내해야 하기도 한다. 특히 만성질환은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아도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트린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만성통증센터는 오래된 통증으로 신음하는 환자들과 함께하는 믿음직한 파트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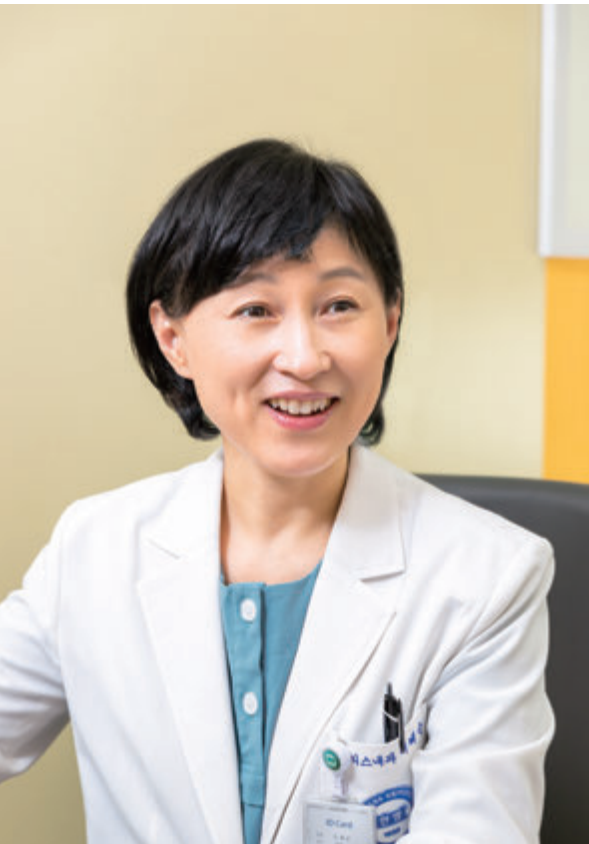
글. 정라희 사진. 김재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홍보팀

만성통증의 통합적 치료를 위해 모이다

원인을 쉽게 알 수 없는 만성통증은 본질적으로 여러 진료과의 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교과서나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다학제적 진료를 권고한다. 그러나 분주하게 돌아가는 병원 상황 속에서 여러 진료과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란 쉽지 않은 일. 환자들이 여러 진료과를 방문해 치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예약하고 대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한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이러한 환자들의 아픔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8년 7월, 만성통증센터를 개소했다. 류마티스내과와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4개 진료과가 한 시스템 안에서 만성통증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성통증센터’라는 명칭을 내걸고 공식적인 진료를 한 것은 지난해부터지만, 사실상 현재와 같은 센터의 체계는 이미 5년 전부터 구성되어 있었다. 류마티스내과와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를 중심으로 ‘만성통증 맞춤 클리닉’을 운영하며 만성통증을 통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의 기반을 다져온 것이다. 다만 이때는 환자들이 개별 진료과를 돌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후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리모델링을 하며 만성통증을 한자리에서 진료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만성통증센터를 새롭게 구성하고, 센터 내에 ‘관절류마티스 클리닉’, ‘발걸음 클리닉’, ‘관절재활 클리닉’, ‘척추신경외과 클리닉’, ‘통증심리 클리닉’ 등 5개 클리닉을 개설했다. 배우자의 만성통증 치료를 위해 센터를 찾은 보호자 이봉주 님은 “예전에는 여러 층을 옮겨 다녀야 했지만, 지금은 한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치료 효과를 높이는 다양한 시도

만성통증센터가 생기면서 여러 진료과를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든 것은 물론, 각종 장비를 활용한 치료도 대부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해상도 초음파기기를 새롭게 도입했고, 체외충격파, 적외선체열진단기, 전기치료기 등 통증과 관련한 다양한 기기를 활용한 중재 시술도 가능하다. 또 2명의 전담 간호사가 등록과 안내, 설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진료과가 다르더라도 통증 치료에 사용하는 기기는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더불어 센터와 인접한 통증 의학과 기기인 수술용 투시조영장비(C-arm) 역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만성통증센터장을 맡은 류마티스내과 이해순 교수의 말이다. 만성통증센터에서는 환자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다채로운 시도를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태극권으로 알려진 중국 무술 ‘타이치’다. 만성통증 맞춤 클리닉 시절부터 시작해 3년째 이어져 온 운동 프로그램이다. 이해순 교수를 비롯해 타이치 자격증이 있는 간호사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교육을 주도한다. 일주일에 1회 본관 강당에서 무료로 열리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환자들의 호응은 좋은 편이다.



“만성통증은 약물이나 시술 등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병행하고 심리적인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해요. 타이치의 경우, ‘관절염 타이치’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증 완화는 물론 근력과 균형 감각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죠.”

쾌적한 공간, 다양한 기기와 프로그램 등 탄탄한 시스템을

갖추었지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만성통증센터의 가장 큰 경쟁력은 참여 의료진들의 남다른 열의와 파트너십이다. 만성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해 최선의 진료로 시너지를 내고 있는 만성통증센터. 이들의 노력이 아직 미담의 영역에 있는 만성통증 치료의 새로운 길을 내는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

Mini interview

발걸음을 분석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발걸음 클리닉 장성호 교수(재활의학과)

만성통증 환자 중에는 발 변형으로 보행 문제를 겪는 분들이 많고, 반대로 무릎과 고관절 문제로 걸음걸이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죠. 발걸음 클리닉에서는 보행 문제 혹은 발의 문제가 보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특수 장비를 이용해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간단하게는 신발이나 깔창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불편을 상당히 덜 수도 있어 환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보행 분석 장비를 갖춘 곳은 우리 병원을 포함해 국내에 단 3곳밖에 없어요. 앞으로 더욱 많은 분들에게 발걸음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픈 관절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관절재활 클리닉 박재현 교수(재활의학과)

센터 구성원으로 합류하여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나의 외래 공간 안에 이렇게 다양한 기기를 갖춘 곳은 흔하지 않죠.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즉시 할 수 있다는 것이 센터의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척추관절과 어깨관절 등의 통증 문제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관절재활 클리닉에서는 재활 치료와 함께 자세 교육 등을 병행하고 있는데, 통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과의 협진이 매우 중요하죠. 만성통증센터의 시너지로 환자들의 통증을 더욱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의 수술로
최대의 효과를!



척추신경외과 클리닉 류제일 교수(신경외과)

신경외과 영역에서는 뼈와 신경, 근육 등에 발생한 문제를 수술적 치료로 지원합니다. 신경 차단술이나 수술 전에 시행할 수 있는 비침습적 치료도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가능한 비수술적 치료로 만성통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최소침습수술로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진료과 의료진이 한 공간에 모인 만큼 협진의 밀도를 높여 환자분들을 돕겠습니다.

통증과 연관된 심리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통증심리 클리닉 김대호 교수(정신건강의학과)

통증의 원인은 매우 복잡해요. 심리적 문제로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통증 때문에 심리적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증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만성통증센터가 개소하며 환자들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통증심리 클리닉에서는 통증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통증에 특화된 약물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지요. 앞으로 통증에 초점을 둔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개설해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의 '친절한' 설명으로
그 치료법과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Prosopagnosia

동명의 영화를 재구성한 JTBC 드라마 〈뷰티 인사이드〉가 막을 내렸다. 남자주인공의 몸과 얼굴, 체형과 성별이 매일 달라져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영화 속 설정은, 여자주인공인 한세계(서현진)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 동안만 변한다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설정이 추가되었다. 한세계의 상대역인 서도재(이민기)가 안면실인증을 앓고 있다는 것. 모습이 변하는 여자와 변화하는 모습을 인식할 수 없는 남자의 사랑이야기가 〈뷰티 인사이드〉의 주요 내용이다.

서도재는 이십 대 중반에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사람의 얼굴을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이후 그는 자신의 장애를 감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개개인의 옷차림, 손버릇, 걸음걸이, 체형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했다. 자신의 삶을 지키고자 매 순간 온 힘을 다했다.

나이와 성별에 제한 없이 걸모습이 바뀌는 주인공의 설정 때문에, 서도재가 겪고 있는 안면실인증 역시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와 같은 장애를 겪고 있는 인물이 많다.

관계를 위협하는 아픔

드라마 〈뷰티 인사이드〉와 안면실인증

안면실인증의 문제는 '기억'이 아니라 '인식'에 있다. 매일 보는 사람은 물론 자신의 얼굴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은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알아보기 위해 목소리와 말투, 작은 몸짓이나 습관까지 모두 관찰하고 기억하며 이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정리. 편집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할리우드 배우이자 영화제작자인 브래드 피트다. 그는 2013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안면실인증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고백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자신을 모른 척하며 모욕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싫어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관계적 문제는 드라마 속에서도 드러난다. 서도재의 이복동생은 오빠의 병을 알게 된 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오빠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어”라고.

한편 국내 유명인사들 가운데도 안면실인증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인물들이 있다. DJ DOC 멤버 이하늘, 배우 조미령, 가수 호란 등이 사람의 얼굴을 잘 인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특히 영화배우 오정세의 경우 증상이 심각해 “사진으로는 아내와 아이들을 찾을 수 없다”는 아픔을 털어놓기도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없다는 죄책감, 언제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외로움이 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발생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방법 달라

김영서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안면실인증이란

안면실인증(Prosopagnosia)은 그리스어의 ‘얼굴(Prosopon)’과 ‘알지 못한다(Agnosia)’의 합성어로,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는 증상이나 장애를 말한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는 배우자나 자녀들의 얼굴을 인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심지어 자기 얼굴을 인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보인다. 하지만 지적인 능력이나 사물을 감별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얼굴이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안면실인증 환자들은 사회생활 중에서 정상인들보다 훨씬 심각한 어려움을 매일 경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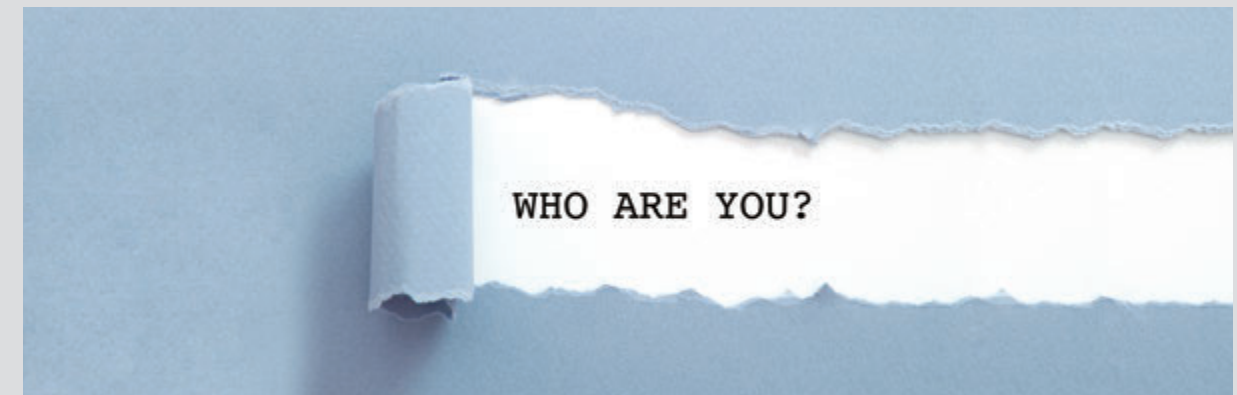
안면실인증의 원인

사람이 눈으로 무언가를 응시하면 양쪽 후두엽으로 시각정보가 들어가 해석되며 보이게 된다. 후두엽으로 들어온 시각 정보는 양쪽 측두엽으로 연결된 방추상회(Fusiform Gyrus)를 통해 이전에 기억했던 정보와 맞춰보면서 얼굴을 인식하게 된다. 이 과

정에서 경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시각정보 전달체계가 무너지고,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름과 매칭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뇌졸중이 있으며 일산화탄소 중독, 뇌염, 뇌종양, 외상,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등이 있다. 대개는 뇌의 양쪽에 손상이 있는 경우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우측에만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안면실인증의 진단과 치료법

안면실인증이 후천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양쪽으로 뇌졸중이 발생했거나 외상이 있었다거나, 퇴행성질환과 같은 뇌질환이 생겼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뇌자기공명영상(MRI)과 같은 검사가 응급으로 필요할 수 있으며, 뇌에 어떤 질환이 있느냐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간혹 선천적으로 안면실인증이 있는 환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유전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상호 협력하는 의술로
고객의 건강과 삶을 돌봐온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최고
협력병원을 소개합니다.



지역주민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병원 협력기관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시민들의 분주한 발걸음으로 쉴 새 없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로터리 인근.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1998년 설립 이래 20년간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해왔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지만, 사회적 편견에 따라 진료나 상담을 주저한다. 이에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이 지역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갔다.

글. 윤진아 사진. 김지원

정신질환, ‘편견’ 접고 ‘희망’으로

정신질환은 치료로 예방할 수 있지만,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은 낮은 실정이다. 안동현(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성동구정신보건복지센터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지 않는다면, 의사들이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성동구보건소와 한양대학교병원이 협약으로 설립한 기관이다. 중증·만성정신질환 및 알코올중독을 앓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임신부 대상 산후우울증 예방사업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조기 발견과 치료는 물론 재활 및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이 맞물려 돌아간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은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모인다. 의료 사각지대의 질환자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평가와 상담을 시행하고, 필요 시 타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다. “오늘도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실 의료진이 찾아와 인지치료를 했어요. 아무래도 지역 보건소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 해체 등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진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이분들을 위해 한양대학교 가족들도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하지요. 의과대학, 간호대학 학생들은 센터 직원들과 함께 가정방문도 나가고, 각종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공공의료에 대한 식견을 넓힙니다. 전공의와 임상수련생들도 센터 진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현황도 파악하며 환자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고요.”

중학교 2학년 박재민(가명, 14세) 군은 산만한 태도와 망상적 사고로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교사들이 심리검사를 권했지만, 보호자는 치료를 거부했다. 검사와 치료에 돈 쓸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였다. 다행히 센터가 한양대학교병원 사회사업실과 연계해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했고, 김강률 교수 진료로 약물치료가 이루어졌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재민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됐다. 김강률 교수는 일주일에 한 번 센터로 찾아와 재민의 약물 부작용 여부 등을 진단하고, 치료 방향을 점검한다. 중증질환자인 이시현(가명, 25세) 씨는 조현병으로 2차례 입원한 전력이 있다. 퇴원 후 한양대학교병원 외래치료를 받으며 센터의 주간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회 복귀 준비를 하고 있다. 김현수(가명, 49세) 씨는 센터 단주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주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로 12
성동구보건소 금호분소 3층
문의: 02-2298-1080

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1년 가까이 단주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담가들의 도움에 감명을 받아 사회복지사 과정을 준비 중이다. 센터의 알코올 중독 예방·치료·관리 사업에는 중독전문가인 노성원 교수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찾아가는 복지사업’ 치료 문턱 낮춘다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개소 20주년을 맞아 올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그중 지난 7월 19일 한양대학교병원 강당에서 개최한 ‘학부모 아카데미’는 학령기 정신건강을 주제로 민아란 전 한양대학교병원 교수의 공개강의로 진행돼 지역 내 학부모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이튿날에는 의과대학 TBL룸에서 자살예방심포지엄도 열었다. 지역밀착형 자살예방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온 안동현 센터장은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이 돌아가며 센터를 지키는 이유다.

“센터 전담직원뿐만 아니라 협약기관인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를 포함한 여러 의료진, 그리고 보건소, 구청,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주민자치센터, 학교 등 다양한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시기를 놓치지 전에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해줄 의료진이 환자 곁에 가깝게 있어야 해요.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각종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 지역주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임직원과 한양대학교병원 의료진은 미소 하나, 눈물 한 방울의 힘을 공유하며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을 위무하고 있다. 지역 복지의 중추시설이자 병원 사회공헌의 바람직한 롤모델이 되겠다는 약속에 믿음이 갔다.🌀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그린 세기말 빈 분리주의 대표작



R i c h a r d S t r a u s s O p e r a < E l e k t r a >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오페라 <엘렉트라>

자신도 모르는 채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테베의 왕 오이디푸스를 그린 「오이디푸스 왕」과 「안티고네」, 그리고 간통한 남자와 함께 남편을 죽인 부인을 아들이 살해하는 미케네 왕가의 비극을 다룬 「엘렉트라」, 소포클레스의 이 3대 비극은 고대 그리스 비극들 중 가장 강렬하고 압도적이다. 바로 B.C.410년 소포클레스의 이 마지막 비극 「엘렉트라」가 세기말 빈에서 오페라로 재탄생되었다.

오페라 <살로메>로 세계를 경악시켰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드레스덴 궁정극장 무대에 올릴 오페라를 위해 작가 호프만스탈과 손을 잡았다. 호프만스탈은 이미 자신이 연극으로 만든 <엘렉트라>를 오페라의 소재로 슈트라우스에게 제안하였지만 그는 다른 소재를 택하자고 오랫동안 호프만스탈을 설득했다. 그러나 호프만스탈의 집요한 설득에 슈트라우스는 결국 동의했고 두 사람은 최초의 공동 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오페라 <장미의 기사>,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등 약 25년간 두 사람은 독일어권 최고의 ‘대본작가와 작곡가’ 콤비가 되었다.

대본을 쓴 호프만스탈은 1903년 희곡 「엘렉트라」를 집필하기 직전,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요제프 브로이어의 공동 저작 「히스테리 연구(Studien ueber Hysterie)」를 탐독하였다. 동시대인들은 엘렉트라를 ‘정신병자’로 간주했지만, 사실 엘렉트라는 단순한 정신병리학적 차원을 뛰어넘는 주인공이었다.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하

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오이디푸스 왕」에서, 그리고 딸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이 「엘렉트라」 비극에서 비롯되었다. 오페라 <살로메>에 이어 <엘렉트라>는 세기말 빈 특유의 표현주의적이고, 대담한 불협화음과 극단적인 낭만주의의 서정성으로 감정이 교차되는 빈 분리파의 대표적인 독특한 작품이다. 슈트라우스는 훗날 자신의 회고록 「관조와 회상」에서 “오페라 <살로메>와 <엘렉트라>는 내 생애의 모든 작품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작품들이다. 나는 여기서 하모니의 극한, 심리주의적인 폴리포니, 그리고 오늘날 청중의 청각적 수용 능력의 극한까지 치달았다”라고 적었다. 1909년 1월 25일 드레스덴 초연 직후 슈트라우스는 관객의 반응을 보고 “이만하면 주목할 만한 성공”이라고 자평했지만, 평론가들은 “탈락!”이라고 타전했다. 하지만 1주일 후 뉴욕에서 대성공을 거뒀고, 베를린과 뮌헨, 이듬해 1910년엔 영국, 부다페스트, 프라하, 브뤼셀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소포클레스의 이 복수극에서는 존속살해를 저지른 행위자 오레스테스보다는 고뇌하며 독백하는 세 여성 엘렉트라, 클리템네스트라, 크리소테미스가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소포클레스는 복수의 행위 자체를 부각시키기보다는 등장인물들의 대화와 독백을 통해 ‘무엇이 인간을 존속살해로 이끄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트로이 전쟁 때 그리스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은 전쟁이 끝나고 10년 만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 클리템네스트라와 그녀의 정부 아이기스토스에게 칼과 도끼로 무참히 살해 당한다. 트로이를 치기 위해 그리스 선단이 출항할 때 바람이 불지 않자 총사령관인 아가멤논은 신들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만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쳤는데 이를 지켜본 클리템네스트라는 자신의 명예와 위신을 위해 자식을 죽이는 남편에게 정이 완전히 떨어졌다. 그래서 남편이 전쟁에 나간 사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 그렇지만 엘렉트라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혐오했다. 아버지의 죽음을 억울하게 여겨 복수를 버르는 엘렉트라는 어머니와 그 정부가 어린 남동생 오레스테스까지 죽일까봐 동생을 멀리 피신시킨 뒤, 어른이 되어 돌아올 날을 간절히 기다렸다. 성 밖에서 노숙하며 짐승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엘렉트라와 그녀에 대해 떠들어대는 여인들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이 오페라는 시작한다. 어머니 클리템네스트라는 엘렉트라 앞에 나타나 불면과 악몽에 시달리는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며 “온몸이 죽음을 외치지만 한번 앓

지도 않는다”며 스스로를 비웃자 엘렉트라는 그런 어머니에게 독설을 퍼붓는다. 오레스테스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절망에 빠진 엘렉트라는 성 안에 사는 여동생 크리소테미스에게 이제 그가 돌아올 희망이 사라졌으니 함께 아버지를 위해 복수하자고 간곡하게 호소한다. 하지만 여성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크리소테미스는 언니의 청을 거절한다. 엘렉트라는 혼자라도 실행하겠다고 결심한다. 성 안 사람들을 안심시켜 놓고 그 틈에 복수를 결행하고자 했던 오레스테스는 미리 사람을 보내 자신이 마상시합에서 말에 채여 죽었다는 헛소문을 퍼뜨렸던 것이다. 오레스테스와 누나 엘렉트라는 재회의 기쁨에 벅차게 포옹하지만, 그녀는 “나는 죽은 존재나 다름없다”며 동생 앞에 수치심을 토로한다. 이때 크리소테미스가 성 밖으로 달려 나와 오레스테스가 어머니와 그 정부를 죽였다는 소식을 전하자 엘렉트라는 기쁨에 겨워 춤을 춘다. “음악이 안 들리느냐? 그 음악은 바로 내 안에서 나오고 있어.” 크리소테미스에게 이렇게 말한 엘렉트라는 “다들 말하지 말고 춤추라”고 외치며 막이 내린다. 🎧

들 을 만 한 A l b u m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Decca, 1966]

지휘: 게오르크 솔티
비르기트 닐손(엘렉트라),
레지나 레스닉(클리템네스트라),
마리 콜리에(크리소테미스),
툼 크라우제(오레스테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Orfeo, 1964]

지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아스트리드 바르나이(엘렉트라),
마르타 뢰델(클리템네스트라),
힐데가르트 힐레브레히트(크리소테미스),
에버하르트 베히터(오레스테스)



드레스덴 슈테츠키펠레
[DG, 2014]

지휘: 크리스티안 틸레만
에블린 헤를리투스(엘렉트라),
안네 슈반빌름스(크리소테미스),
발트루트 메이어(클리템네스트라),
르네 파페(오레스테스)



글. **오재원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앙상블과 스탠포드 팔로 알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제1바이올린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고전음악에 대한 사랑을 환자를 비롯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필하모니아의 사계」라는 클래식 안내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전설이 되길 원했던 뮤지션, 프레디 머큐리



30년의 세월을 거스르는 여전한 감동의 이야기

70~8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의 아이콘이 되는 인물이 있었다. 지금은 상상하기도 힘든, 인터넷 이전의 세상에는 가위질로 영망진창이 되어 줄거리가 연결이 되지 않던 영화(물론 VHS와 소니의 베타로 통용되는 음성 비디오영화의 세계도 있었다)가 있었고, 라디오나 LP(정식 라이선스를 통해 수입되는 음반에는 삭제된 곡이 있어 백판이라 불리는 날 것 그대로의 불법 LP가 유통되었다)를 통해 듣고는 의미도 모른 채 흥얼거렸던 팝송이란 길티 플레저(Guilty Pleasure, 그 당시는 외제 담배도 단속 대상이었으니까)가 존재했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 스타의 근황까지 꿰뚫게 되는 요즘에 비해 옛날에는 오롯이 귀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저 너머 동경의 대상들은 상상력이란 MSG를 통해 살찌워져 문자 그대로 아이돌(우상)이 되었다.

어린 시절 나를 사로잡았던 팝 아티스트들은 어쿠스틱한 선율의 감미로운 리듬을 선사한 이지적인 두 친구 ‘사이먼 앤 가펩클’, 청명한 음색과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요즘의 혹 송과 유사)의 ‘아바’(중학교 1학년 때 재개봉극장에서 아바의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선도부 선생에 걸려 반성문을 썼다. 아직도 이유는 모른다), 청계천을 구석구석 뒤져가며 모든 LP판을 사서 모았던 천상의 그녀 ‘올리비아 뉴튼 존’,

마지막으로 락과 메탈에 기반을 두었지만 아카펠라에서 오케스트레이션까지 극과 극을 치달으며 4옥타브를 넘나드는 엄청난 음역을 가진 프레디 머큐리가 이끄는 영국의 그룹 ‘퀸’이었다. 일본의 영화 잡지(스크린, 로드쇼)와 국내 〈월간 팝송〉이란 잡지를 통해 처음 접한 퀸의 리드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다. 글램 락을 연상시키는 짙은 화장과 수북한 가슴털을 드러낸 채 성 정체성을 의심할 만한 의상을 입었으나 이와는 부조화스러운 돌출된 광대뼈와 치아를 가진 아국적인 풍모(순수한 앵글로 색슨이 아닐 거라는 의심은 했었다)의 리드 싱어. 세월이 좀 더 흘러 뮤직비디오와 공연 영상을 통해 본 그는 맵시 있는 스키니 청바지와 런닝 셔츠 차림으로 무대를 스타카토 식으로 단절하며 걸으면서 땀범벅이 된 채 피아노 앞에 앉아 직접 연주를 하는 콧수염이 멋진 뮤지션이었다. 그의 일대기가 영화를 통해 구현되었다. 지금도 TV만 켜면 퀸의 음악이 CF에서 쏟아지고 있으니 이 영화를 보지 않을 재간이 없다.

“Is this the real life. Is this just fantasy”로 시작되는 4명의 아카펠라는 스피커 양쪽을 넘나들며 프레디 머큐리의 피아노 선율에 곁들인 독창과 더불어 조금씩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브라이언 메이의 리드 기타 이후 폭발적인 가성이 뒤따른다. 오케스트라를 방불케 하는

절묘한 협주와 가사를 따라가기 어려운 정도로 광폭해지던 멜로디는 “Nothing really matters. Anyone can see... Anyway the wind blows”라며 천천히 대미를 장식한다. 6분이라는 터무니없이 긴 러닝타임을 가진 오페라와 락을 결합한 〈Bohemian rhapsody〉는 1975년 그룹 퀸이 발표한 〈A night at the opera〉라는 앨범의 타이틀 곡이자 영화감독 브라이언 싱어가 감독한 동명의 영화이다. 영화는 영국 식민지 잔지바르 출신의 파록 불사라라는 이름의 20대 초반 젊은이가 1970년대 초반 브라이언 메이와 로저 테일러로 구성된 Smiles란 밤무대 그룹과 만나는 순간부터 1985년 Live Aid 공연에서 전 세계 20억을 사로잡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는 시간을 다룬다. 라미 말렉이 분한 프레디 머큐리는 스스로 아웃사이더로 자처하여 그룹명도 영국에서 두 번째의 여왕(Second to none)이라는 의미로 재탄생했으며, 수성(水星)이자 연금술을 창시한 그리스 신화 속의 헤르메스에 해당하는 머큐리로 개명하였다. 아무리 봐도 닮지 않은 배우가 익숙한 역사적 인물을 연기한다는 것은 보기에 괴롭다. 빠드렁니를 어쩔 줄 몰라 하며 꼭 입맛을 다신 후 말을 시작하며 별다른 연기적인 과업(이를 테면 감정의 굴곡이나 갈등의 해소 없이 다소 개연성이 떨어지는 스토리텔링)없이도 판토마임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 퍼포먼스와 무브먼트에 과잉집중한 듯한 주인공의 가면을 쓴 듯한, 그 자신도 이집트계 핏줄인 라미 말렉의 연기는 보는 내내 안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곡 가깝게 수록된 넘치는 명곡의 향연은 그의 웃는지 우는지조차 모를 돌출된 광대뼈와 치아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그가 포디엄이 없는 마이크를 들고 박진감 넘치게 무대를 활보하게 된 배경, 보헤미안 랩소디가 탄생할 당시의 뒷 이야기(그가 두드리던 피아노는 비틀즈의 폴 매카트니가 〈Hey Jude〉를 작곡할 당시 실제 이용했던 바로 그 악기다), 평생의 연인 메리 오스틴과 결별하고 양성애자에서 동성애자로 변하는 계기, Live Aid를 위해 다시 뭉치는 네 명의 이야기는 약했지만 흥미로웠다. 영화 제목처럼 많은

부분이 보헤미안 랩소디에 할애되어 있는데, 가사는 한 남자를 총으로 쏜 죽인 13세 남자아이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뜻 모를 단어들은 많은 해석을 낳는데 갈릴레오(지동설을 주장하여 종교재판에 출두한 천문학자처럼 두려운 심정), 피가로(약혼녀인 수잔나에게 초야권을 행사하는 귀족에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 판당고(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제3막 피날레에서 나오는 에스파니아 민속춤), 비스밀라(코란의 첫 구절에 나오는 자애로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벨제붓(지옥왕국의 최고 군주), 스카라무슈(까만 의상을 입고 기타를 치면서 허풍을 떠는 악살꾼) 등이 그것이다. 가사의 함의는 아무도 모른다.

웬블리구장의 10만 관중 앞에서 퀸의 모든 것을 쏟아 붓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 정확히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무렵인 1985년 7월 13일은 그 1984년 말, 밥 겔도프에 의해 영국에서 시작된 ‘Do they know it’s Christmas?’가 미국에서 건너가 이듬해 3월에 ‘We are the world’로 전 세계를 뒤흔든 지 몇 개월 후 16시간 동안 생방송된 범세계적인 자선 공연이 코스모폴리타니즘이란 이름으로 거행된 뜻 깊은 날이다. 사회부적응자, 소수집단, 이방인을 벗어나려 했지만 한편 스스로 굴레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던 돌아온 탕아 프레디 머큐리가 전설이 되어 버린 바로 그 순간 나는 까닭 모를 눈물이 났다. 33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또 그랬다. 제2의 여왕인 퀸이 아닌 하나밖에 없는 퀸 페아에게, 프레디 머큐리로 살고자 했던 파록 불사라에게 경배를.🙏



Movie

보헤미안 랩소디
(Bohemian Rhapsody, 2018)

감독: 브라이언 싱어
출연: 라미 말렉, 루시 보인턴, 굴림 리, 벤 하디, 조셉 마젤로



글. **이형중**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이형중 교수는 기자를 꿈꾸던 학창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더해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읽히는 까닭은 해박한 영화 관련 지식을 풀어내는 내공은 물론 대중영화와 예술 영화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시각 덕분이다.

명작을 남긴 화가의
질환이 작품과 삶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오늘날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위대한 관찰자는 외사시 환자?

글. 임한웅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안과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천재,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화가이자 조각가였고 발명가, 건축가, 해부학자, 식물학자, 도시계획가, 천문학자, 지리학자, 음악가였다. 다방면에 호기심이 넘치고 창조적이었던 그는 미술 유산 역시 상당수 남겼는데 21점의 회화와 10만 점에 달하는 소묘, 스케치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천재에게만 허락된, 혹은 그를 천재로 만들어준 특별한 비밀이 있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특별한 눈’이었다.



최후의 만찬, 1495~1497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레오나르도 다 빈치(1452~1519)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바 없었음에도 의학, 공학, 미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두각을 나타냈다. 그로 인해 다 빈치는 ‘신적인 인간’ 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너무 일찍 깨어버린 사람’이라고 칭송받았다. 그리고 얼마 전, 그 천재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조각과 회화에서 탁월한 입체 모양을 재현할 수 있었던 그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내용이었다.

런던 시티대학 크리스토퍼 타일러교수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조각과 유화 및

드로잉 작품을 분석하여, 2018년 10월 18일자 <미국의학협회 안과학지(JAMA Ophthalmology)>에 ‘그가 간헐적인 외사시(Intermittent Exotropic Strabismus) 경향을 보인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타일러 교수는 다 빈치의 후기 자화상 1점,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가 다 빈치 모델로 만든 조각상 ‘다비드’ 등 2점, 다 빈치가 자신의 모습을 투영했다고 알려진 그림 3점까지 총 6점을 분석한 연구에서, 특히 시선의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각 작품의 동공, 홍채, 눈꺼풀 위치를 측정한 다음 각도로 변환해 보니, 여섯 작품 모두에서 외사시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

타일러 교수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다 빈치는 때에 따라 눈이 바깥을 향하는 간헐적 외사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한쪽 눈만으로 보는 단안시각으로도 전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빈치의 눈으로 본 세상은 평평한 캔버스 같았을 것”이라며 다 빈치는 일반인들처럼 3차원적인 입체로 세상을 보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했다. 때문에 미술 작업을 할 때 더 수월했을 것으로 봤다. 편향된 눈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예술 작업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으로, 보이는 물체나 얼굴의 3차원적인 양상 및 멀리 떨어진 야산의 풍경 심도를 잘 묘사하는 예술가들의 뛰어난 능력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 그는 “한쪽 눈으로 세계를 보면 캔버스에 그려지거나 칠해진 평면 이미지와 직접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화가에게는 오히려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레브란트 등 역사상 여러 유명 화가들은 눈의 정렬이 어긋난 사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처럼 눈꺼풀과 동공, 홍채의 위치로 눈 위치를 분석하여 사시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의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이 분석한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갓난아이들은 모두 내사시로 진단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를 눈꺼풀 때문에 환자가 가려져 내사시처럼 보이는 가짜 내사시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실제 외사시 환자인지에 대한 여부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사시인 간헐 외사시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간헐 외사시란 무엇인가

간헐 외사시는 눈의 긴장이 풀리는 상황, 즉 멎거나 피곤할 때 눈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경향(외편위)이 있는 사시 형태 중 하나다. 눈에 힘을 주고 집중하면 두 눈이 사물을 정상적으로 보는 것으로 관찰되지만, 긴장을 풀었을 때는 한 눈이 바깥으로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 미용적인 문제나 또는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발생할 수 있다. 간헐 외사시가 있으면 얼굴을 마주 보고 말하는데 눈이 다른 방향을 쳐다보는 것으로 보여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못한다고 생각되거나 눈 모양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 대인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간헐 외사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사시 질환이다. 외편위 현상이 어찌다 한 번, 가끔 발생하는 탓에 얼핏 보기에는 사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다. 눈의 외편위는 피곤하거나 감기나 열이 있을 때, 졸릴 때 주로 나타나고, 성인의 경우 술이나 안정제를 섭취했을 때 잘 나타난다. 눈이 피로하거나 장시간 독서를 할 때에는 눈모음에 따른 두통, 복시, 시력장애 등을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자각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최근에 생긴 사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잘 발달된 억제기전에 의해 복시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간헐 외사시와 동반된 약시는 간헐적인 양상으로 심하지 않고, 입체시 기능은 간헐 외사시 환자가 융합조절력을 잃으면서 저하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외사시 환자들은



모나리자, 15세기

빠른 교대 주시로 정상 입체시가 가능하다.

간헐 외사시 환자는 사시가 진행되는 양상, 즉 외편위량과 융합 능력을 관찰한 후 치료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외편위량이 15프리즘디옵터 이하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드물고, 외편위량이 20~25프리즘디옵터 이상이고 융합 능력이 떨어져 외사시가 자주 나타날 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된다. 매우 큰 외편위를 보이는 간헐성 외사시 환자들의 경우 치료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시 수술은 비교적 안전한 수술이며, 경과가 양호한 편이므로 간헐적으로 눈 모양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시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
이 알기쉬운 건강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과 치료

글. 박태선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호흡기내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

만성폐쇄성폐질환이란 담배나 먼지, 가스 등에 의해 기관지가 좁아지고 기관지의 끝인 허파파리가 망가지면서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3배 이상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터에서 먼지나 가스, 나무나 연탄을 땔 때 나오는 연기 등을 장기간 마셔도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질병부담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 세계 사망원인의 3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폐기능 검사는 진단에 필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은 폐기능 검사에서 비가역적인 기류제한이 있는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경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일반적인 증상이 없어 폐기능 검사를 하지 않으면 질병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진료 현장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관지와 허파파리가 망가져있다가 감기 후 기관지염으로 심하게 숨이 차서 병원을 찾는 환자를 많이 보게 된다. 이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다. 따라서 중년 이후의 성인이 가파른 곳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있으면 먼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닌지 폐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Point.

경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일반적인 증상이 없기 때문에
폐기능 검사로 질병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비약물치료와 약물치료

치료의 목표는 증상 완화, 운동능력 향상, 삶의 질 향상, 급성악화의 감소, 질병진행 예방, 사망률 감소에 있다. 비약물치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이다. 금연을 하면 폐기능이 일부 회복되어 호전되고 기침, 가래도 감소하며 생존율도 증가한다. 문제는 담배를 끊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인데 바레니클린과 같은 금연약제가 도움이 되고 있다. 그 밖의 비약물치료로는 호흡재활이 있는데 이는 빨리 걷기와 같은 운동으로 증상을 개선시키고 삶의 질을 호전시키는 방법이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움직이면 숨이 차고 불안하여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이로 인해 근력이 악화되며, 다시 운동능력이 감소하여 더욱 숨이 차는 악순환을 겪기 때문에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 약물치료는 최근에 다양한 종류의 흡입제가 개발되어 있으며 흡입제 치료를 통해 호흡곤란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급성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 환자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호흡기내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주의사항

일터 환경에 먼지가 많고 유해 가스가 있으면 환기를 시키고 분진마스크 등으로 예방한다. 야외 공기오염이 심할 경우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주방에서 발생한 연기와 같은 실내 공기오염도 줄이도록 한다. 매년 독감백신을 접종하고, 폐렴구균예방백신도 접종해야 한다. 🦠

- 본 원고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지난 11월 2일에 진행한 건강강좌의 내용입니다.

- 한양대학교의료원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강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건강강좌 소식은 46쪽 한양캘린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ANYANG NEWS

2018년 10월 ~ 2018년 12월

한양대학교의료원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노·사가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11월 13일 계단강의동 앞 주차장에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11월 6일 동관 앞 주차장에서 헌혈운동을 펼쳤다. 헌혈증서는 입원 중인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한양대학교병원

성동구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봉사



본원이 성동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지난 9월 13일에는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10월 18일에는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한 의료봉사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안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등의 진료과가 참여해 건강상담, 혈압, 혈당측정 등을 진행했다. 본원은 성동구보건소와 연계하여 2019년에도 4~10월까지 월 1회 의료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뇌졸중 주제로 건강강좌

본원은 지난 10월 24일 본관 3층 강당에서 '뇌졸중'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



에서는 김현영, 김영서 신경과 교수가 뇌졸중의 빠른 대처 및 치료, 예방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

소화기내과 연수강좌 개최

본원은 지난 10월 27일 본관 3층 강당에서 '소화기내과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위장관과 간담체 두 세션으로 나뉘어 총 여덟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전대원 내과장(소화기내과 교수)은 "이번 연수강좌는 소화기질환의 최신 지견과 새로운 치료 약제, 내시경초음파시술 등 임상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토론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체장암 주제로 건강강좌



본원은 지난 11월 14일 본관 3층 강당에서 '체장암의 달(11월)'을 맞아 '체장암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소화기내과 윤재훈 교수가 '체장암 바로 알기', 외과 이경근 교수가 '체장암 수술 치료'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식 환우를 위한 건강강좌



본원은 지난 11월 16일 본관 3층 강당에서 '이식 환우를 위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소화기내과 전대원 교수가 '간이식 대상자와 간이식 수술시기', 외과 최동호 교수가 '간이식 수술과 합병증 관리', 감염내과 김봉영 교수가 '이식환자의 예방접종', 사회복지팀 성명순 과장이 '이식환자의 사회·경제적 지지'를 주제로 강의했다.

병원학교, 개교 13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본원 병원학교는 개교 13주년을 맞이해 지난 11월 27일 본관 3층 강당에서 기념식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질병을 이겨낸 4명의 완치학생에게 완치메달을, 학업에 열심인 학생에게 모범상을 수여했고, 자원봉사를 해온 현직 교사들에게 감사장도 전달됐다. 병원학교는 2005년 11월 25일 수도권 최초로 교육청 인가를 받아 개교하여 현재까지 100여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 학교 복귀 및 사회 진출을 돕고 있다.

뇌신경계질환 연구회 심포지엄 개최



본원은 12월 1일 본관 3층 강당에서 '제10회 뇌신경계질환 연구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뇌신경계질환의 다양한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에 대해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총 일곱 개의 주제강의가 진행됐다.

소화기 기능성질환 주제로 건강강좌



본원은 지난 12월 10일 본관 3층 강당에서 '위식도역류질환과 기능성 소화불량'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에서는 소화기내과 김은진 교수가 '위식도역류질환의 원인과 치료법', 소화기내과 이강녕 교수가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 후에는 소화기내과 이오영 교수가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의학연구원 심포지엄 개최



본원은 지난 12월 14일 본관 3층 강당에서 '의학연구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연구원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아홉 개의 강의 후 토의가 진행됐다.

의학연구원장인 이광현 병원장은 “이번 첫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의학연구원의 다양한 임상연구 지원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7년 발족한 의학연구원은 임상시험센터, 융합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의료정보연구센터, 인체유래물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제12회 구리시의사회 개원의 연수강좌 성료



본원은 지난 10월 27일 본관 12층 사랑의실천홀에서 '제12회 구리시의사회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류마티스내과 이혜순 교수가 '온몸이 아파요, 섬유근통', 혈액종양내과 원영웅 교수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이해', 정신건강의학과 이호선 교수가 '수면장애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환자들기', 이비인후과 정재호 교수가 '어지러운 환자 교통정리 하기'를 주제로 강의했다.

개원 23주년 · 외래 리모델링 준공 기념식 개최



본원은 지난 10월 31일 본관 12층 사랑의실천홀에서 '제23주년 개원기념 및 외래 리모델링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김경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재민 병원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김재민 병원장은 “개원 당시 단일건물로 시작해 동관, 서관을 증축하였고 올해 신관을 완공,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며 “본원이 명품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병원 발전에 공로가 큰 교직원과 부서에 모범직원상과 우수부서상이 수여됐다.

재난대비 소방훈련 실시



본원은 지난 11월 2일 구리소방서와 '재난대비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초로 화재장소(9층)를 발견한 목격자가 육상전파와 화재신고를 시작으로 ▲자위소방대 및 민방위대원의 화재진압 및 환자 보호자 대피훈련 ▲구리소방서 도착 ▲소방서 현장대응단장에게 지휘권을 이양하여 화재가 진압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구리시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



본원은 구리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2일에는 호흡기내과 박태선 교수가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진단과 치료' 강의를, 11월 14일에는 안과 조희운 교수와 홍은희 교수가 '눈에 좋은 식품과 아이들 눈 건강 관리' 강의 및 무료검진을, 12월 7일에는 내분비대사내과 이창범 교수가 '당뇨병 동맥경화에서 탈출하기' 강의를 진행했다.

제4회 감염관리 강조주간 행사 개최

본원은 지난 11월 5일부터 9일까지 감염관리 강조주간을 맞아 교직원,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감염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이번 감염관리 강조주간 행사에서는



▲Glitter-Bug를 이용한 올바른 손 위생 교육 ▲감염예방 포스터 공모작 게시▲감염지킴이 워크숍 ▲형광 투시체험 이벤트 ▲손 오염도 측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친절직원 캠페인 시행



본원은 지난 12월부터 교직원의 친절 의식을 고양하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고객만족 경험을 제공하고자 친절직원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객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된다.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국제 루푸스 심포지엄 개최

본원 류마티스내과 배상철 교수와 방소영 한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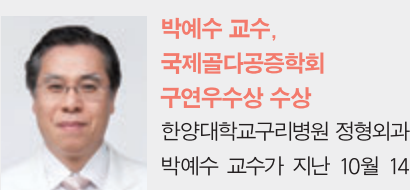
학교구리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지난 11월 16일부터 3일 간 중국과 공동으로 개최한 '2018 국제 전신 홍반성 루푸스 유전학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배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아시아 지역 최대의 루푸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동서양을 모두 포함하는 대규모 국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또한 한·중이 야심차게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연구회의도 개최되어 양국의 루푸스 연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18 성과보고회 개최



본원은 지난 12월 14일 본원 1층 로비에서 '2018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본원에서 진행한 다양한 행사들을 동영상으로 시청한 뒤, 전재범 기획분과위원장의 성과보고 등이 진행됐다. 배상철 병원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도 류마티즘 치료의 4차병원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글로벌한 병원’, ‘환자와 사회에 봉사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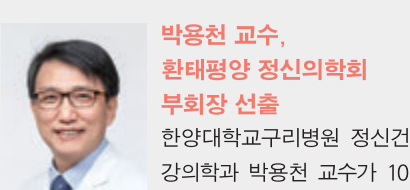
인물동정



박예수 교수, 국제골다공증학회 구연우수상 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형외과 박예수 교수가 지난 10월 14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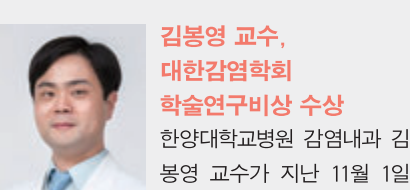
열린 '제3회 국제 골다공증 학술대회'에서 'The influence of sarcopenia on sagittal imbalance in the elderly'를 주제로 한 연제로 구연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용천 교수, 한태평양 정신의학회 부회장 선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용천 교수가 10월 28일 미얀마 양곤에서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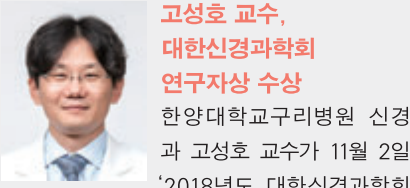
최된 '제18회 한태평양 정신의학회(PRPC) 총회'에서 부회장에 연임됐다.



김봉영 교수, 대한감염학회 학술연구비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김봉영 교수가 지난 11월 1일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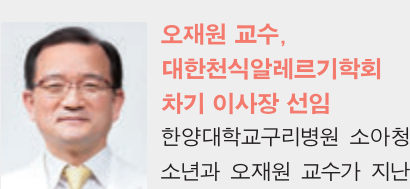
한감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국내 의료기관의 항생제 스튜어디스 프로그램을 위한 적정 인력 산출 연구로 학술연구비상을 수상했다.



고성호 교수, 대한신경과학회 연구자상 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과 고성호 교수가 11월 2일 '2018년도 대한신경과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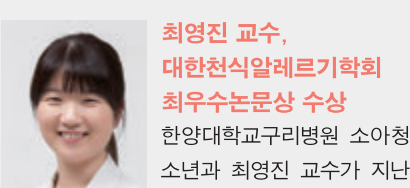
추계심포지엄'에서 지난 3년간 국제 학술지에 가장 많은 JCN(대한신경과학회 공식학회지) 논문을 인용해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JCN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오재원 교수,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차기 이사장 선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가 지난 11월 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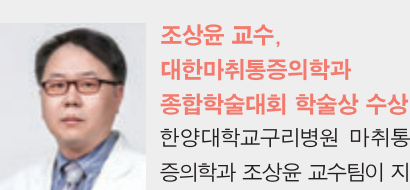
에서 열린 '2018년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년이다.



최영진 교수,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영진 교수가 지난 11월 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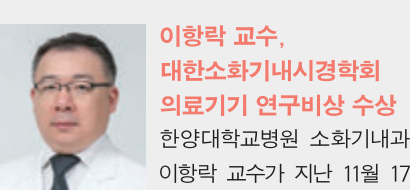
에서 열린 '2018년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오재원 교수, 장여순·윤정민 전공의와 공동연구한 '소아 급성특발성두드러기에서 성분 항원에 대한 감각'이라는 논문으로 청산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조상운 교수, 대한마취통증의학과 종합학술대회 학술상 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상운 교수팀이 지난 11월 8일 서울 드래곤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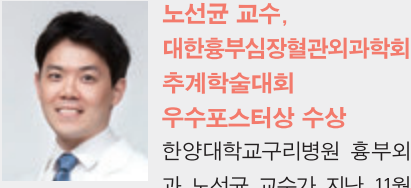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마취통증의학과 종합학술대회'에서 WSPC 기념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항락 교수,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의료가기 연구비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항락 교수가 지난 11월 17일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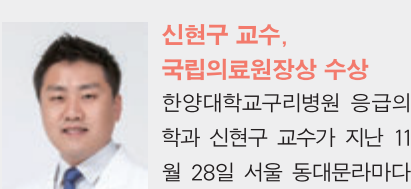
화기내시경학회 학술대회'에서 대사성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사비만 위장관 풍선 치료 효과 관련 연구로 2018년 의료가기 연구비상을 수상했다.



노선균 교수, 대한홍부심장혈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포스터상 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흉부외과 노선균 교수가 지난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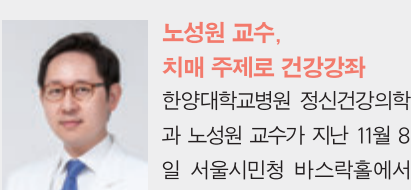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그랜드워커히호텔에서 개최된 '제50회 대한홍부심장혈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젊은 환자에서 대동맥식도루의 성공적인 단계적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신현구 교수, 국립의료원장상 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의학과 신현구 교수가 지난 11월 28일 서울 동대문로마다 호텔에서 개최된 '2018년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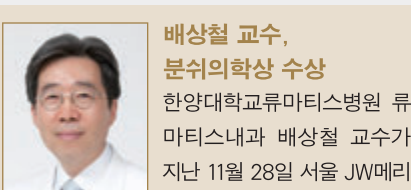
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워크숍'에서 경기도 동부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로 국립의료원장상을 수상했다.



노성원 교수, 치매 주제로 건강강좌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노성원 교수가 지난 11월 8일 서울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치매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치매의 모든 것, 젊은 뇌로 살아가기'를 주제로 치매의 예방과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배상철 교수, 분취의학상 수상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배상철 교수가 지난 11월 28일 서울 JW메리

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제28회 분취의학상 시상식'에서 난치성 류마티스질환 연구와 진료의 선구자로서 기여해 온 공로로 분취의학상 본상을 수상했다.

분취의학상은 조선 고종의 주치의이자 국내 최초 독일인 의사인 리하르트 분쉬(Richard Wunsch) 박사의 이름을 따 만든 상이다. 본상은 20년 이상 의료 또는 연구에 종사하고 국내 의학 발전에 끼친 공로가 인정되는 의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언론 속 한양인

TV와 신문에 등장한 한양인을 소개합니다.
2018년 10월 ~ 2018년 11월

KBS1TV 생로병사의비밀
황환식 교수

내 몸 살리는 등산

YTN 사이언스뉴스
박성열 교수

중년 남성 괴롭히는
...전립샘비대증

On-Air

KBS1TV 생로병사의비밀
이창범 교수

이소성지방

KBS1TV 생로병사의비밀
최찬범 교수

내가 키운 고동,
통풍의 오해와 진실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심재항 교수

대상포진

한양대학교병원 박정환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KBS1R [라디오 주치의]/ 10월 3일/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치료와 관리 **안성준 안과 교수** SBS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월 4일/ 갑자기 시력이 좋아진 남자 **임영호 심장내과 교수** YTN [뉴스]/ 10월 5일/ 돌연사 부르는 '부정맥'...전파로 조기 발견한다 **황환식 가정의학과 교수** KBS1TV [생로병사의 비밀]/ 10월 10일/ 내 몸 살리는 등산 **임한웅 안과 교수** KBS1R [라디오 주치의]/ 10월 15일/ 안검하수의 발생원인과 관리법 **박성열 비뇨의학과 교수** YTN [사이언스투데이]/ 10월 23일/ 중년 남성 괴롭히는...전립샘비대증 **김현영 신경과 교수** KBS1R [라디오 주치의]/ 10월 25일/ 뇌졸중의 치료와 관리 **박진석 신경과 교수**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월 25일/ 맛있는 것만 먹으면 눈물이 뚝뚝, 눈물의 판페라 가수 **김보은 영양사** MTN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 10월 26일/ 간에 좋은 식품, 11월 16일/ 당뇨에 좋은 식품 **장효준 흉부외과 교수** MBN [생생정보마당]/ 11월 6일/ 고 신성일, 그리고 폐암 **허란 심장내과 교수** KBSR [김승희의 상상라이프]/ 11월 10일/ 폐동맥고혈압 **김희진 신경과 교수** KBS3R [건강365]/ 11월 13일/ 치매 **윤영은 비뇨의학과 교수** KBS1R [라디오 주치의]/ 11월 13일/ 전립선비대증 **전형준 신경외과 교수** KBS3R [건강365]/ 11월 27일/ 척추질환 **이향락 소화기내과 교수** TV조선 [구조신호 시그널]/ 11월 28일/ 이유 없이 울부짖는 여인의 비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고성호 신경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11월 1일/ 알츠하이머 치매 **최호진 신경과 교수** YTNR [당신의 전성기 오늘]/ 11월 2일/ 절대 미워서는 안 될 질병과 증상, 치매! **이창범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KBS1TV [생로병사의 비밀]/ 11월 21일/ 이소성지방 **심재항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월 23일/ 대상포진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최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KBS1TV [생로병사의 비밀]/ 10월 31일/ 내가 키운 고동, 통풍의 오해와 진실, KBS3R [건강365]/ 11월 6일/ 류마티스관절염 **한양대학교국제병원 박계영 종합검진센터 교수** TV조선 [구조신호 시그널]/ 11월 6일/ 매맞는엄마_건강검진결과

2018년 10월 8일(월)

2018년 11월 27일(화)

한양대학교병원 임한웅 안과 교수 서울신문 [임한웅의 의공학 이야기]/ 10월 2일/ 주사비늘 공포 없는 백신, 10월 30일/ 인공자궁 개발, 11월 27일/ 부작용의 긍정적인 효과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동아일보/ 10월 4일/ 담배 피우고 싶을 땀 딱 2분만 다른 생각 해보세요, 조선일보/ 10월 16일/ '푸드 포르노' 먹방 보며 식사한다면... 당신은 이미 중독 **김승현 신경과 교수** 중앙일보/ 10월 8일/ 치매 환자 치료에 약물만큼 더불어 사는 포용력 필요 **박성열 비뇨의학과 교수** 한국일보/ 10월 9일/ '아버지암'서 '형님암'으로... 발병연령 낮아지는 전립선암 **노영석 피부과 교수** 조선일보/ 10월 11일/ 건선, 적절한 치료법 찾는 게 중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태로 호전 가능, 10월 12일/ 건선,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날은 옵니다 **박훈기 가정의학과 교수** 조선일보/ 10월 12일/ 양손 잡고 허리 좌우로... 천천히 흔들면 근력 강화 **김희진 신경과 교수** 경향신문/ 10월 16일/ 치매 진행속도 늦추는 '약물치료' **윤호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경향신문/ 10월 17일/ 시도 때도 없이 콧물콧물... 가을 되면 더 괴로운 '마른기침', 11월 14일/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 40%,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도 많아 **김남수 소아청소년과 교수** 베이비뉴스/ 10월 22일/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과 관리, 올바른 이해 필요 **김봉영 감염내과 교수** 조선일보/ 10월 23일/ 독감 백신 접종 후엔 왜 사위하면 안 될까? **손장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한국일보/ 10월 23일/ 세계 사망원인 3위 넘보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아시나요, 조선일보/ 10월 30일/ 1초간 불어내는 공기량으로 천식·COPD 알 수 있어, 중앙일보/ 11월 12일/ 조금만 운동해도 헐떡헐떡? 담배가 몸 속 산소 훔쳐갔네요 **김경수 심장내과 교수** 서울신문/ 10월 29

2018년 10월 16일(화)

2018년 11월 5일(월)

일/ 단백질만 먹으면... '혈관 비만'의 복수 **고주연 피부과 교수** 조선일보/ 11월 6일/ 피곤하면 왜 다크서클이? **이규훈 재활의학과 교수** 중앙일보/ 11월 5일/ 팔손 안팎 어르신들 "오랜만에 기차 타고 숲길 걸으니 상쾌", 11월 12일/ 많이 걸어라, 새 지식 쌓아라...누구든 만나라, 감점 나눠라 **이오영 소화기내과 교수** 조선일보/ 11월 6일/ 내시경 시술 한참 뒤 大腸에 구멍... '자연 천공' 아세요? **배현주 감염내과 교수** 국민일보/ 11월 13일/ 대한항균요법학회 '2018 항생제 내성 예방주간 전문가 포럼'에서 감염 전문가들의 경고, 매일경제/ 11월 28일/ 항생제 남용 심각...30년 후엔 매년 1000만 명 사망 **하태경 외과 교수** 한국일보/ 11월 27일/ 고도 비만, 수술 외에 검증된 치료 없어... 주사제 삭센다도 주의해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재호 이비인후과 교수** 중앙일보/ 10월 1일/ 두통 동반한 어지럼증, 방심했다간 치명적 뇌질환 농쳐요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베이비뉴스/ 10월 19일/ 걸음마 아이 영양을 위해 딱 한 가지 해야 할 것 **이주학 신장내과 교수** 아시아투데이/ 10월 31일/ '제15회 대한혈액투석학과 연구회 심포지엄' 개최 **김창철 소아청소년과 교수** 경향신문/ 11월 12일/ 미숙아에서 'RS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강화해야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성윤경 류마티스내과 교수** 동아일보/ 10월 18일/ 만성질환인 류마티스관절염 ICT 활용해 치료 효율 높이자 **유대현 류마티스내과 교수** 뉴스1, 이데일리, 데일리경제/ 10월 24일/ 셀트리온 램시마SC, 류마티스관절염 효능·안전성 입증, 이데일리/ 10월 25일/ 류마티즘, 완치 불가능하지만 치료기회 지속적 늘어날 것 **배상철 류마티스내과 교수** 국민일보/ 11월 14일/ 2018 올해의 분취의학상 본상은 한양대 배상철 교수 품으로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Together & Tomorrow

모금 캠페인이란?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힘찬 미래를 향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매월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급여공제, 무통장입금 또는 자동이체(CMS)를 통해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는 모금 캠페인입니다.

사용 용도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 건립기금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관 신축기금
-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연구중심병원
발전기금

참여 대상

한양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동문, 환자 및 보호자, 학생 및 학부모, 재단 가족 및 교직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약정 방법

- 온라인 약정하기 :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www.hyumc.com) ⇨ 발전기금 icon 클릭 ⇨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약정서 다운로드 ⇨ 약정서 작성(서명) ⇨ 팩스(02-2296-3806) 또는 이메일 송부(hmcfund@hyumc.com)

※ 발전기금은 법에 의거하여 시설, 연구, 교육
학술 활동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전기금을 기부해주시는 분들께는 세금공제
와 함께 기부금에 따른 예우 혜택이 있습니다.

※ 문의 :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
Tel. 02-2290-9535~6

기부자 명예의 전당

이 명예로운 자리에 귀하의 소중한 이름을 새기겠습니다

〔5천만원 미만~3천만원 이상〕



WILLIAM ROBERT

[3천만원 미만~1천만원 이상]



김병자



박근태



차상식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2018년 10월 ~ 2018년 11월 기부자 명단

2018년 10월 ~ 2018년 11월 기부자 명단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5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고병우	갑구정안과의원	김한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변순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규용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우성	새움병원
		고성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현옥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서승표	성애병원	이두연	선수존병원	정재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공동의	주안나누리병원	김희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서우영	메디인병원	이봉근	한양대학교병원	정재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재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곽인영	곽이비인후과의원	김희수	새움병원	서정심		이상현	다블유병원	정재홍	메디인병원
대한족부족관절학회		구선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남승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서정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상훈	이상훈이비인후과의원	정진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재일	제일내과의원	국은영	한양대학교병원	남영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성명순	한양대학교병원	이성필	메디인병원	정진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용성	신이비인후과의원	김금옥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남정현	前한양대학교병원	성민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승욱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조기섭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안경성	한양학원재단법인	김남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노선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손주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승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조명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유준호	다솜내과	김도윤	새움병원	노정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손한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양섭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조아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윤여옥	태암내과의원	김동섭	KD밝은안과	노준모	서울척병원	송충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영석	다블유병원	조영훈	성민병원
이동규	이동규내과	김동윤	새길병원	류기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대현	상쾌한이비인후과	이은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조주열	명동안과의원
10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김문성	김문성이비인후과의원	류제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동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장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조현진	한양대학교병원
		김봉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문지용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순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재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조희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성재	동탄성심병원	문진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용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종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지용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경현	한양대학교의료원	김승현	한양대학교병원	문홍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정철	성남이안과	이주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채영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대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양욱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민경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정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주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경진	최경진정형외과
김순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영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기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태양	전주고려병원	이준서	밝은빛 안과	최성환	최성환 이비인후과
김영애	前한양대학교병원	김영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동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심경아	한양대학교병원	이진규	한양대학교병원	최승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우종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옥중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성욱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심지훈	양평병원	이창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완식	새로운정형외과의원
심재항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용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예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안치원	한양대학교병원	이창우	선한목자병원	최정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염종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용호	김용호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박용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여광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창훈	노원을지병원	최준석	탑이비인후과의원
오미경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우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용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영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혜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준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전우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운웅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원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재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화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충혁	한양대학교병원
조상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윤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일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유교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임완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혁중	한양대학교구리병원
50만 원 미만 ~ 10만 원 이상		김이석	한양대학교병원	박찬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유미경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임종선	충주의료원	최호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정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창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유정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장성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홍웅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준현	갑구정안과의원	박태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유창성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장재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하루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강대진	우리들산부인과의원	김지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혜경	코코이비인후과	윤명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장태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동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강민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지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한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윤여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전석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영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강일규	강일규이비인후과	김창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환경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윤원구	윤정형외과	전용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상웅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강정환	강이비인후과의원	김창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희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은창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전재범	한양대학교병원	한승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강창남	한양대학교병원	김철웅	메디인병원	박희철	서울정형외과	이경섭	이경섭정신과의원	정규성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한장희	참조은이비인후과
강형구	한양대학교병원	김충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반은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경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미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주희	한주희정형외과
강홍구	한양정형외과의원	김태완	홍익안과	방소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경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수경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홍성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고란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태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백운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광현	한양대학교병원	정승원	상쾌한이비인후과	홍의호	한양대학교구리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황의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민정	수술실	김철한	원무팀	박선영	제3중환자실	설명길	의료정보팀	오화경	수술실
10만 원 미만		김민정	인공신장실	김초롬	본관5층	박선희	마취후회복관리실	성경희	본관11층	오희순	응급의료센터
		김민정	수술실	김춘애	영양팀	박성찬	진단검사의학과	성혜윤	감염관리팀	옥상열	홍보팀
		강문주	본관11층	김병숙	원무팀	김태근	병리과	박소은	영양팀	손영성	본관9층
강민아	진단검사의학과	김보미	신경외과	김태호	재활의학과	박수미	신생아중환자실	손진석	기획팀	우정미	고객지원팀
강석범	핵의학과	김상미	본관10층	김하연	응급의료센터	박수정	본관9층	송은경	진단검사의학과	원혜정	부속실
강성훈	진단검사의학과	김상훈	약제팀	김현주	고객지원팀	박순구	안과	송주영	본관7층	원홍석	교육연구팀
강신창	핵의학과	김상희	본관11층	김현진	재활의학과	박연희	수술실	송현수	시설팀(시설)	유고은	본관10층
강윤성	의무기록팀	김석현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창	물류팀	박응범	기획팀	신명희	치과	유미화	물류팀
강지원	기획팀	김선영	재무팀	김형근	진단검사의학과	박유정	감염관리팀	신미숙	진단검사의학과	유병호	제3중환자실
공경숙	신생아중환자실	김성철	병리과	김형석	약제팀	박은수	본관10층	신수지	수술실	유선길	내과중환자실
공지현	심장센터	김성훈	영상의학과	김형주	수술실	박은영	인공신장실	신정미	영양팀	유숙	병리과
곽동원	영상의학과	김소란	본관10층	김혜림	감염관리팀	박은영	내시경실	신철우	진단검사의학과	유영미	본관7층
권난희	영양팀	김수연	보험심사팀	김황룡	여주세민병원	박은형	고객지원팀	신현주	인공신장실	유은희	제3중환자실
권미화	호흡기내과	김순식	노동조합	김효준	인사총무팀	박응범	비상계획계	심요라	보험심사팀	유정안	물류팀
권연희	영양팀	김아름	본관5층	김휘원	본관8층	박점현	본관11층	안대웅	교육연구부	유주량	본관5층
권오균	노무팀	김애경	내과중환자실	김희나	본관21층	박주원	의무기록팀	안명현	병리과	유지학	인사총무팀
권유진	응급의료센터	김애경	본관20층	나소정	수술실	박주은	분만실	안미경	영양팀	유현영	물류팀
권혁천	수련교육팀	김연주	병동서무	나인철	재활의학과	박지경	영양팀	안석태	영상의학과	유현주	건강검진센터
권현숙	본관5층	김영선	본관5층	남기준	원무팀	박지애	QI팀	안선미	내과중환자실	육수영	대외홍보팀
권혜영	인공신장실	김영신	치과	남순영	본관5층	박지혜	응급의료센터	안유정	외과	윤경주	응급의료센터
김경수	본관6층	김영연	외과	노광규	인사총무팀	박진옥	보험심사팀	안은종	의료정보팀	윤선미	영양팀
김경숙	집중영양치료실	김영일	임상연구지원팀	노옥석	동관7층	박진희	인공신장실	안은진	2층내과	윤선애	본관7층
김경실	본관5층	김영자	진단검사의학과	노창완	영상의학과	박진희	원무팀	안이슬	본관10층	윤선희	영양팀
김경우	진단검사의학과	김영훈	물류팀	류종백	시설팀	박춘아	수술실	안정미	수술실	윤아름	본관10층
김경중	한양정신건강의학과의원	김육원	영상의학과	명영숙	국제행정지원팀	박현화	마취후회복관리실	안정은	본관11층	윤인숙	본관17층
김광영	고객지원팀	김은미	정형외과	문상희	제3중환자실	박혜정	건강검진센터	안정현	이비인후과	윤정희	약제팀
김기라	인사총무팀	김은실	본관6층	문영민	영상의학과	방민주	제3중환자실	양길녀	본관11층	윤지선	본관6층
김나영	본관18층	김은주	응급의료센터	문재봉	시설팀(시설)	방성주	대외홍보팀	양미영	영양팀	윤희순	진단검사의학과
김대건	영상의학과	김은희	수술실	문정희	본관9층	방지훈	신경외과	양수용	중앙공급실	윤희순	고객지원팀
김도와	내시경실	김인호	약제팀	문희애	본관6층	배순석	수술실	양은주	낮병동	윤희정	인공신장실
김동관	진단검사의학과	김자윤	해민정신건강의학과	박경림	보험심사팀	배은희	보험심사팀	양정자	원무팀	윤희재	본관12층
김란	본관5층	김재희	영상의학과	박경미	비뇨기과	백형정	약제팀	양호선	약제팀	이강연	인사총무팀
김령	영양팀	김정달	진단검사의학과	박경숙	본관15층	백혜연	수술실	엄혜정	수술실	이경은	영상의학과
김명환	영양팀	김정민	본관10층	박경희	중앙공급실	서명진	주사실	여은주	본관6층	이경철	고객지원팀
김미라	마취후회복관리실	김정숙	보험심사팀	박근배	보험심사팀	서병갑	영상의학과	오금복	신생아중환자실	이관석	원무팀
김미라	성형외과	김정연	외과	박미숙	영양팀	서소연	소아청소년과	오미혜	본관8층	이규택	신경과
김미라	영상의학과	김주희	2층내과	박미순	원무팀	서소연	응급의료센터	오영숙	고객지원팀	이금란	인공신장실
김미성	인공신장실	김준식	진단검사의학과	박미옥	교육연구팀	서승희	내과중환자실	오유선	본관9층	이나리	본관10층
김미화	고객지원팀	김종식	홍부외과	박상혁	영양팀	서승희	본관9층	오정님	영양팀	이나영	수술실
김미희	본관7층	김창금	영양팀	박선아	진단검사의학과	서영남	본관8층	오지현	진료협력팀	이두중	핵의학과
김민아	본관10층	김창복	홍보팀	박선영	원무팀	서현주	진료협력팀	오홍석		이명숙	병리과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이명주	약제팀	이현주	원목실	지혜정	의료정보팀	홍대영	인사총무팀				
이미경	영양팀	이현중	영상의학과	진춘희	영양팀	홍민영	비뇨기과				
이미란	신경외과	이혜정	수술실	천경희	의료정보팀	홍숙의	병동서무				
이미정	본관9층	이호문	영상의학과	천영복	물류팀	홍은미	내과중환자실				
이미정	인공신장실	이호용	영상의학과	천은미	소아청소년과	황성환	외과				
이민진	건강관리팀	임경순	신경외과	천은선	외과	황성희	정형외과				
이상미	제3중환자실	임다현	본관10층	최문정	본관5층	황영순	본관5층				
이새롬	본관11층	임연희	진단검사의학과	최미옥	제3중환자실	황정선	마취후회복관리실				
이서윤	본관9층	임은실	응급의료센터	최민희	마취후회복관리실	황준호	의료정보팀				
이선영	본관6층	임은자	이비인후과	최선희	진단검사의학과	황희수	영상의학과				
이선화	본관9층	임인자	수술실	최성은	교육연구팀	기부금 명단은 가나다 순입니다.					
이성모	원무팀	임정연	고객지원팀	최세연	원무팀						
이성미	신경외과	임주아	정형외과	최소담	영상의학과						
이소연	응급의료센터	임지영	영양팀	최승희	본관10층						
이수연	고객지원팀	임화영	비뇨기과	최신자	진단검사의학과						
이숙	고객지원팀	장선정	신생아중환자실	최영선	인공신장실						
이숙희	마취후회복관리실	장윤주	약제팀	최윤희	신생아중환자실						
이순자	본관10층	전경신	신생아중환자실	최재범	원무팀						
이승호	영상의학과	전효선	영상의학과	최정연	대외홍보팀						
이연주	정형외과	정경은	본관5층	최종석	영상의학과						
이영미	인공신장실	정기영	영상의학과	최종은	보험심사팀						
이에린	제3중환자실	정대천	원무팀	최현구	본관8층						
이유미	심장센터	정선주	본관7층	최현주	진단검사의학과						
이윤진	응급의료센터	정선희	인공신장실	최혜용	고객지원팀						
이은경	인사총무팀	정수정	건강증진팀	최희영	QI팀						
이은영	마취후회복관리실	정은영	수술실	표은주	진단검사의학과						
이은애	본관5층	정일웅	의료정보팀	하경애	마취후회복관리실						
이은주	기획팀	정임중	응급의료센터	하은영	약제팀						
이정식	고객지원팀	정정미	본관10층	한상운	원무팀						
이정애	병리과	정지현	응급의료센터	한수진	본관10층						
이정은	고객지원팀	정현정	진단검사의학과	한승희	수술실						
이정인	당뇨센터	정혜영	내과중환자실	한아영	수술실						
이정화	신경과	조구성	영상의학과	한정연	QI팀						
이정화	소아청소년과	조규선	영상의학과	한현정	보험심사팀						
이정희	본관8층	조은영	영상의학과	함명자	보험심사팀						
이종열	치과	조인옥	진단검사의학과	허정현	심장센터						
이주영	비상계획계	조현교	진단검사의학과	허지선	본관7층						
이주현	중앙공급실	조현일	시설팀	허지영	병동서무						
이주현	본관6층	조환영	수술실	허태영	진단검사의학과						
이진주	응급의료센터	지미경	보험심사팀	허효숙	2층내과						
이하랑	마취후회복관리실	지은아	본관8층	현순희	2층내과						

Hanyang Calendar

1 January

18	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오후 3시	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요통에 좋은 자세 및 운동 재활의학과 박재현 교수
22	화	한양대학교병원	사랑의 음악회	오후 12시	본관 1층 로비	김성자 연주단
25	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오후 12시 30분	본관 지하 1층	최시영 외 남성 성악
26	토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오전 10시	본관 3층 강당	루게릭병 건강강좌
28	월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오후 12시	장소 미정	호흡기알레르기질환 건강강좌

2 February

8	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오후 3시	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대장암 바로 알기_외과 이준호 교수
12	화	한양대학교병원	사랑의 음악회	오후 12시	본관 1층 로비	글로리아 합창단
16	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오후 2시 30분	본관 지하 1층	예은 중창단
19	화	한양대학교병원	사랑의 음악회	오후 12시	본관 1층 로비	이유경 무지크
22	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오후 12시 30분	본관 지하 1층	에다미 중창단
23	토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오전 10시	본관 3층 강당	루게릭병 건강강좌
25	월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오후 12시	장소 미정	호흡기알레르기질환 건강강좌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회복지기금 모금 캠페인’

Sharing is happiness

생명 사랑 나눔의 순간,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

한양대학교의료원 이웃사랑 사회복지기금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공제 · 무통장입금 또는 자동이체(CMS)를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 ▶ **사용용도** : 취약계층 환우의 의료비 지원
- ▶ **참여대상** : 누구나 참여 가능
- ▶ **참여방법** : 온라인(www.hyumc.com) → 사회복지기금 클릭 → 약정서 다운로드 (작성 후) →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구 분	한양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후원계좌	100-031-815870 / 신한은행 (예금주:한양대학교병원)	100-031-811976 / 신한은행 (예금주:한양대학교구리병원)
연락처	02) 2290-9440	031) 560-2986
팩스	02) 2290-9439	031) 553-5118
이메일	ss9708@hyumc.com	kimyim@hyumc.com

*사회복지기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전화예약** : 02 - 2290 - 8114

■ **응급실** : 02 - 2290 - 8283

■ **진료의뢰 의사전용** : 02 - 2290 - 9717

http://seoul.hyumc.com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2290-8303	최호순	수, 금	월	간질환, 담낭, 담도, 췌장
	윤병철	월, 목	수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이오영	월, 수, 토(4주)	화,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이항락	금, 토(2주)	월, 화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전대원	월~목, 토(1주)	수	간질환
	이강녕	화	목, 금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윤재훈	월, 화, 토(3주)	화, 목	담낭, 담도, 췌장
	김은진	목	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김재하		화, 목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박진화	월, 화, 금, 토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심장내과 2290-8700	임대현	수	월, 금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김경수	화, 목, 토(3주)	화, 금	허혈성 심장질환, 심혈관중재술, 심장줄기세포치료, 협심증, 고혈압, 부정맥
	신진호	월, 수, 금, 토(4주)	수	고혈압, 심부전, 심혈관중재술
	임영호	수, 금	월, 수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 및 말초동맥질환, 심혈관 및 대동맥 중재술, 고혈압, 심부전
	박진규	월, 목, 토(1주)	화, 목	부정맥, 인공심장박동기
	허 란	화, 토(2주)	월, 목	심장질환
	최연우			
	김근호	월, 수(1주), 금, 토(3주)	화, 목	전해질장애, 고혈압, 신부전, 부종, 복막투석
	이창화	화, 수, 금, 토(1,2주)	월, 목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박준성	월, 목, 토(3주)	화, 수, 금	일반 신장내과질환
신장내과 2290-8300	이준한	목, 토(1,2,4주)	월	일반 신장내과질환
	안유현	월~목, 토(2주)	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뇌하수체
	최용환	월~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김동선	월, 수, 목, 토(4주)	월, 화	당뇨병, 뇌하수체, 갑상선
	박정환	화, 토(3주)	수~금	일반 내분비대상질환
	윤호주	월, 수, 토(4주)	수, 목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면역성 폐질환, 기침, 알레르기, 폐암, 결핵
	손장원	목, 토(2주)	월	호흡기중환자관리,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폐암
	김상현	월, 화, 금, 토(2주)	화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만성기관지염, 간질성 폐질환, 면역성 폐질환, 알레르기
	박동원	화, 수, 토(3주)	월, 목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중환자진료, 간질성 폐질환
	이 현	목, 금	수, 금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암, 결핵, 비결핵항상균폐질환(NTM)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2290-8302	정승준	토(1주)	화, 금	호흡기 알레르기질환
	손장원	월~수, 금	화~금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김경현	월~금	월~금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이영열	월, 수	목, 금	만성백혈병, 골수증식질환, 림프증, 골수증, 기타혈액질환
	박병배	화, 목	월, 금	림프증, 다발성 골수증, 두경부종양, 뇌종양, 비노생식기계종양, 육종
	엄지은	금	월~수	급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조혈모세포이식
	배현주	목	월, 목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클리닉
	김봉영	화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클리닉
	설인준	화, 목, 토(3주)	월	소아신경 및 근육질환, 소아뇌전증
	김남수	목, 금(구래)	화, 수	소아심장질환
소아청소년과 2290-8380 제대혈클리닉▲	이영호	월, 화, 목, 금, 토(1주)	화, 목	조혈모세포이식, 소아혈액, 소아암
	김용주	월, 화, 목, 금, 토(4주)	월, 목	소아소화기영양
	박현경	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이현주		금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김진섭	수, 금, 토(2,4주)	화, 목	소아내분비
	김종덕	월, 화	수, 금	호흡기알레르기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육아지도실 2290-8871	박현경	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이현주	수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신생아 중환자실	박현경	수~금	월~금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이현주	월, 화, 목, 금	월~목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신경과 2290-8367/ 8368 세포치료센터 &클리닉▲ 2290-9377 서관 7층	김주한	월, 수, 금	월, 수	뇌전증, 실신, 수면장애, 하지불안증후군
	김승현	월(루게릭)▲, 목	월(루게릭)▲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치매 및 루게릭병
	김희태	화, 수, 목▲	화, 목 (파킨슨)▲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손떨림, 뇌졸중
	김현영	수▲, 금, 토(2주)	화, 수▲	뇌졸중,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안면마비
	김희진	화▲, 금	화▲, 금	치매 및 인지장애, 뇌졸중, 파수염, 안면신경마비, 어지럼증, 불면증
	김영서	월, 화, 토(4주)	월, 목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오기욱	월▲, 토(1주)	월▲, 수	말초신경계질환, 근육병질환, 두통
	박진석	화, 토(2,4주)	목, 금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일반신경과질환
	이상곤	수, 토(1주)	목	일반 신경과질환
	박평강	목, 토(3주)	금	일반 신경과질환
정신건강의학과 2290-8419	안동현	수, 토(4주)	월, 수, 목	소아정신의학, 발달장애, 과잉행동증후군
	김석현	화, 목, 토(2,4주)	화, 금	정신약물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노성원	월, 금, 토(2,3주)	월, 목	중독질환,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인지기능, 조현병
	김인향	월, 수	금	
	김강률	목	화, 목	소아정신의학
피부과 2290-8434	노영석	월, 화, 목, 토(2주)	월, 목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탈모, 건선
	고주연	수, 금, 토(1,3주)	화, 수, 금	여드름, 피부미용, 레이저,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결체조직 질환, 피부암, 건선
	김정은		해 외 연 수	
외과 2290-8444	권성준	수, 금	수	위, 십이지장질환, 외과종양학
	권오정	월	월, 수	이식, 혈관질환
	이경근	화, 금	목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최동호	수, 목	월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이강홍	화, 목, 토(2주)	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정민성	목, 토(3주)	월, 목 (맘모토)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종양
	하태경	화, 토(4주)	금	복강경/로봇위암수술, 고도비만대사수술, 복강경탈장수술
	안병규	월, 토(1주)	수, 금	대장(직장)암, 대장항문의 양성질환, 염증성 장질환, 복강경/로봇수술
	소아외과	하태경	월	복강경/소아외과수술, 선천성질환, 탈장수술
	홍부외과 2290-8461	김영학	화, 금	화
정원상		화, 목	화, 목	폐 및 식도외과, 종격동, 흉강경수술, 폐이식
김 혁		수	월, 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흉강경수술, 대동맥수술
장효준		월, 수	수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자발성 기흉, 대만증, 흉강경수술, 로봇수술
이준호		금	월, 금	대동맥질환,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폐크로, 심장이식, 흉부외상
이광현		월, 수, 금		수부외과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최충혁		월, 수	수	슬관절클리닉(관절경화,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성일훈		화, 목	화	족부클리닉, 당뇨병, 변형교정, 스포츠의학
정형외과 2290-8473	강창남	월, 수	월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이봉근	목, 금	화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김이석	화	화, 금	고관절클리닉(인공고관절치환술, 골절, 관절경), 고관절 스포츠 손상, 골다공증
	황규태		해 외 연 수	
	이진규	화, 토	목	슬관절클리닉(관절경화,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구지욱		수, 금	척추 클리닉, 골다공증
	허재승		목	수부외과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박동혁		월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2290-8491	고 용	월 수	월	뇌종양질환, 내시경뇌하수체 수술, 뇌신경질환, 척추질환
	김영수	화	목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증성 질환, 뇌종양, 방사선수술(노발리스TX)
	백광흠	월, 수, 토(2주)	금	디스크, 요통, 척추관협착증, 척추골절, 척추기형, 척수종양
	이형중	목, 토(4주)	화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뇌동맥류, 수두증
	전형준	금, 토(1주)	수	척추질환, 척추외상, 척추종양, 두부외상
	최규선	금	수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외상,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성형외과 2290-8560	배인석		화	일반 신경외과질환
	송대호	목		일반 신경외과질환
	류재만	금	화	외상, 화상, 미용수술
	안희창	수, 금	월	유방재건 및 성형, 선천성 얼굴기형, 레이노드병, 손재건
	김연환	화, 목	화	하지재건, 외상, 안면외상, 미용성형, 육창, 액취증
	박성오	월, 토(2주)	수, 금	안면외상, 화상, 미세성형, 수부외상, 만성창상, 지방흡입
산부인과 2290-8400	임수연	월, 토(1,3주)	수, 목	안면외상(골절 및 신경재건), 수부외상, 선천기형, 미용성형, 미세재건, 두경부재건
	윤정수	수	월	일반 성형외과질환
	황정혜	수, 금	월, 목	폐경, 일반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 수술
	최준섭	월, 수	수, 금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호정규	월, 화, 목, 토(1,3주)	화	고위험임신, 조산, 일반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배재만	화, 토(1,3주)	월, 목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안과 2290-8570	이원우	목, 금, 토(2,4주)	화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엄정민	금, 토(2,4주)	월, 수	일반 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효진	월, 수	금	일반 산부인과질환
	이병로	화, 목	목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임한웅	수, 금, 토(4주)	월, 화(구리)	소아안과, 사시, 안성형, 신경안과
	안성준	금, 토(1, 3주)	화, 수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미숙아망막증
이비인후과 2290-8580	김유정	월, 토(2주)	화, 목	외안부, 굴절교정, 백내장
	이원준	월, 수, 토(2주)	금	녹내장, 백내장, 시신경질환
	이상협	토(4주)	금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박철원	화, 금, 토(3주)	화	만성중이염, 난청, 어지러움증, 이명, 안면신경마비
	김경래	목, 토(2주)	월, 목	부비동염, 알레르기성비염, 부비동내시경
	태 경	월, 수	수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로봇갑상선수술, 경부종류, 음성장애
비뇨의학과 2290-8593	조석현	월, 화, 금, 토(1주)	수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부비동내시경,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수면무호흡
	송창면	목	화, 목	후두음성질환, 성대질환, 편도질환, 구강질환, 갑상선암, 두경부암
	변하영	수, 토(4주)	월, 수, 금	어지럼증, 난청, 소아이비인후과질환, 이명, 중이염, 안면신경질환
	곽민규	월	목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김인식		화, 금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박해영	수, 금	수, 금	신장이식 및 남성과학, 신경색, 전립선질환, 비뇨기질환
재활의학과 2290-9350	김용태	화, 목	화, 수	배뇨장애질환, 여성비뇨기질환, 비뇨기암, 요로결석, 남성성기능장애, 불임
	박성열	월, 수, 목	월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소아비뇨기질환
	윤영은	월, 화	화, 금	결석, 혈뇨, 로봇수술, 신장암, 신장이식, 최소침습수술, 항암치료
	조정기	화, 금	월, 목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정재훈	토(1,2,3,4주)	목, 금	일반 비뇨기계질환
	김미정	월, 수, 금, 토(2주)	월, 수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 2019년 1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방사선종양학과 2290-8614	전하정	월, 수	화, 수, 목	부인과종양, 유방암, 비뇨기종양
	박혜진	화, 금	월, 화	두경부암, 폐암, 소화기암, 림프종, 유방암, 방사선수술
핵의학과 2290-9260	최윤영		수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치과 2290-8671	심광섭	화, 금	수	턱얼굴외상,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이영수	목, 금	월, 화, 목	임플란트, 완전/부분틀니, 심미보철
	황경균	월, 화, 목	월, 화, 목	턱얼굴성형수술(기형),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침샘질환(타액선), 코골이장치
	박창주	화, 목, 금	화, 목, 금	턱얼굴 성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과진정법
	한지영	월~금	금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김주형	월, 화, 목	월, 화, 목	심미교정, 설측교정, 근속교정, 수술교정
맞춤형 비만치료센터 2290-9720	이은혜	월, 수, 금	월, 수, 금	보존치료, 심미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미백
	박훈기	월	목	맞춤형 비만관리 및 검진
	황환식	화	금	맞춤형 비만관리 및 검진
가정의학과 2290-8738	하태경		화	고도비만대사 수술
	박훈기	수, 금, 토(2주)	월, 목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화, 목	금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직업환경의학과 2290-9777	이수진	월, 수, 목, 토(주, 제1)	월, 수, 목	환경 및 산업의학, 직업성 천식
	송재철	화, 수, 금, 토(주, 제2)	화, 수, 금	근골격계질환, 새집증후군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 1층 : 02-2290-9216, 9217, 9226				
류마티스내과 2290-9216	유대현	월, 화, 목, 토(2주)	화, 수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성인형소혈병, 근염
	배상철	월, 수, 목	월, 목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전재범	화, 수, 금, 토(1,3주)	목, 금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경피증, 통풍
	김태환	화~목, 토(1주)	월, 화	강직성 척추염
	성윤경	월, 수, 금, 토(2주)	월, 수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골다공증, 쇼그렌병
	최찬범	화, 수, 금, 토(3주)	수, 금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건선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혈관염
	조수경	해 외 연 수		
	김지승			일반 류마티스질환
	김형영	수, 금, 토(2주)	월, 목	일반 류마티스질환
	남보라	목, 토(1주)	월, 금	일반 류마티스질환
	안가영	월, 화, 토(3주)	수, 금	일반 류마티스질환
	강주연	금, 토(4주)	화, 수	일반 류마티스질환
관절재활의학과 2290-9226	박시복	수, 금, 토(3주)	월, 수, 금, 토(1, 3주)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재활
	이규훈	월, 화, 목, 토(2주)	화, 목	족부재활, 관절재활, 스포츠의학
통증의학과 2290-9216	심재철	월, 화, 수(1,3주)	월, 화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최충혁		월	슬관절클리닉(관절경, 인공슬관절치환술), 류마티스슬관절염
골관절외과 2290-9216				
	이봉근		목	주관절, 회전근개질환, 류마티스질환, 관절경, 건관절
류마티스안과				
	김유정	목	월	쇼그렌증후군, 건성안, 류마티스 관련 눈질환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서관 3층 : 02-2290-9550, 9551, 9552			
종합검진 2290-9550	윤호주	화	목
	박훈기		화, 수
	황환식		월, 목
여행자 클리닉	박계영	월~금, 토(2,4주)	목, 금
	배현주	수	

■ 대표전화 : 1644 – 9118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손주현	화	월, 목	각종 간질환(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간염, 간경변증, 간암)
	한동수	월, 목	화	위장관 질환(염증성 장질환, 대장암, 기능성 위장질환)
	전용철	월, 금	수	소화기, 위장관 질환
	은창수	수, 금	월	위질환, 대장질환, 식도질환, 위암, 대장암, 대장염증
	유교상	화, 수, 토(2,4주)	목	담도, 췌장질환, 소화기질환
	박찬혁	목	수, 금	위·식도역류질환, 위암 및 위염, 기능성 소화불량, 위암 치료(내시경)
심장내과	정재윤	수, 목, 토(1주)	화, 금	간질환, 소화기질환
	이재곤		금	소화기, 위장관질환
	김순길	월, 화, 목, 금	목	임상심장학, 고혈압, 비혈관적 심기능 검사
신장내과	박한철	수, 목, 토(1,3주)	화	부정맥진단 및 치료, 협심증, 인공심박동기 및 체내삽입형 제세동기 삽입술
	신정훈	월, 수, 토(4주)	수, 목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말초혈관질환, 심부전
	이윤구	화, 토(2주)	월, 수, 금	관상동맥 질환, 심혈관 중재술,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내분비대사내과	한상웅	월, 목(클리닉)	금	만성콩팥병, 당뇨병, 골다공증, 사구체신염, 고혈압, 투석요법
	이주학	화, 수, 목(내·외·화)	월, 목	임상신장학, 만성콩팥병, 고혈압
	유미연	월, 수, 토(1,3주)	화, 금	
류마티스내과 관절류마티스 클리닉▲	이창범	화~금, 토(1주)	월, 목	당뇨병, 갑상선질환, 비만증, 골다공증
	유성훈	월, 금, 토(1,4주)	화, 금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일반내분비질환
	이혜순	월, 수, 목, 토(3주) 금, 토(1주)▲	화, 월, 수▲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통풍,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경피증, 섬유근통
	방소영	화(1,2,3주), 금(1,2주) 월(2,3주), 목(1,2주)▲	수(1,2주), 목(1,2주)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강직성 척추염, 경피증, 섬유근통
	권혁희	월, 수, 금, 토(1,3주) 화(2,3주), 목(3,4,5주)▲	월, 화▲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루푸스, 통풍, 베체트병, 만성통증
	유현승	화, 토(2주), 월(4,5주), 토(3주)▲	월~금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통풍, 베체트병, 루푸스, 만성통증
호흡기내과	김태형	월, 수, 목	화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결핵
	문지웅	화, 금, 토(1,3주)	월, 목	만성기침, 호흡곤란, 천식, COPD, 결핵, 폐암
	박태선	토(4주)	수, 금	중환자의학, 폐렴, 호흡부전,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종환자실	내과계	여유미	월, 금, 토(2주)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결핵
	외과계	박태선	월~금	내과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혈액종양내과	여유미	월~금	월, 화, 목	외과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최정혜	화, 목, 토(2,3주)	월, 금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혈압
감염내과	원영웅	월, 수, 금, 토(1,4주)	화, 목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혈압
	김지은	목, 토(2,4주)	월, 화,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해외여행자
소아청소년과	김창렬	화, 수, 금	화	신생아학, 영아신경 발달 및 질환
	오재원	수, 금, 토(2,4주)	월, 수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문진화	월, 화, 목, 금	화, 목	소아신경질환(경련, 두통, 발달지연)
	이영호	월		소아혈액종양
	김남수	월	월	소아심장질환
	최영진	월, 목	월, 수, 금	소아호흡기질환, 알레르기질환
신경과	강하나	월, 목	파	건
	강은구	월, 수, 토(3주)	수, 목, 금	소아내분비, 성장, 유전대사질환(11/12부터)
	이경석	화	목	소아응급
	이영주	화, 금	월, 목, 금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어지럼증, 하지불안증후군
	이규용	월, 수, 금	화, 수	뇌졸중, 두통, 말초신경병증, 하지불안증후군, 손저림
	고성호	월, 화, 수, 목	수	뇌졸중, 신경퇴행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정신건강 의학과	최호진	화, 목, 토(1,3주)	월, 목	치매, 뇌졸중, 두통
	권혁성	수, 토(2,4주)	월, 수, 금	뇌졸중, 어지럼증
	박용천	화(보건소치매), 수, 목	월, 목	문화정신의학, 정신분석, 정신치료, 항병
	김대호	화, 목, 토(1주)	월, 화, 목(클리닉), 수, 목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EMDR
	최준호	월, 수, 금, 토(3주)	수	조현병, 조울증, 신경영양학
	이호선	월, 화, 토(2주)	수, 금	노인정신의학, 치매, 인지기능 장애, 알파정신의학
신경외과 척추신경외과 클리닉▲	김재민	수, 목, 토(1주)	월	뇌혈관질환, 두개저부비종양 및 뇌동맥류, 뇌종양
	정진환	월, 토(2주)	화, 목	두부외상,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수술
	류제일	화, 수, 토(3주)	화▲, 금	척추질환(최소침습척추수술), 척수종양, 두부외상
	한영훈	월, 금, 토(4주)	수	뇌종양, 뇌경위기능, 두부외상
흉부외과	오형석		월, 수	뇌혈관질환, 일반 신경외과
	노선균	수, 금	화, 금	심장질환(관상동맥 심장판막질환, 심장종양, 대동맥 및 혈관질환(동맥류, 말초동맥질환, 하지정맥류 등), 흉부외상, 기흉)
	남승혁	월	월, 수, 목	흉강경수술, 폐암, 식도암, 위양성질환, 기흉, 다한증, 중격동질환, 흉부외상, 흉곽기형

http://guri.hyumc.com

* 2019년 1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정형외과	김영호	월, 수, 금		인공관절치환술, 골절(고관절 및 슬관절)
	박태수	월	수, 금	견관절
	박예수	수, 금, 토(4주)	월	퇴행성 및 골다공성 척추질환, 척추기형
	박기철	화, 목, 토(3주)	금	사지골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
	이정일		해 외 연 수	
	양재혁	목, 토(2주)	화, 수	슬관절(관절경, 인공관절), 스포츠손상
산부인과	이봉근	화		견주관절
	류기영	월, 토(1,4주)	화, 목	조기진통 및 조산, 고위험임신, 초음파, 태아 이상의 진단 및 치료, 일반부인과(복강경수술)
	정언석	수, 금, 토(2주)	월, 수(2주)	단일공법, 복강경수술(난소총, 자궁총), 부인암, 고위험산모
성형외과	부혜연	화, 목, 토(3주)	수(1,3), 금	정상임신, 고위험임신
	이창현	화, 목, 토(2,4주)	화, 목	안면기형 및 재건, 피부암, 미세재건수술, 침샘종양, 미용성형
외과	장정우	수, 토(1,3주)	월, 수, 금	안면외상, 육창재건, 피부종괴, 미용성형
	남영수	월, 수	목	대장항문질환, 유방암, 갑상선질환
	이흥기	수, 금	월	혈관(대동맥, 경동맥, 당뇨발), 이식, 간담체질환
	박현경	목	화, 금	간담체질환, 복강경수술
	김한준	화, 금	목	간담체질환
	김민규	화, 금	수	상부 위장관질환, 복강경위절제술, 탈장
안과	김형식	월, 목, 토(1~4주)	화	유방, 갑상선질환
	이준호		월, 수, 금	대장항문
	조희운	화, 목	목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성민철	수, 금	월, 수	녹내장, 백내장
	강민호	월, 토(2,4주)	화, 금	외안부질환, 굴절, 백내장
	임한웅	토(3주)	화	안성형, 사시, 소아안과
피부과	신용운	월, 금, 토(1주)	수	신경안과, 저시력, 당뇨망막병증, 포도막염
	홍은희	목, 토(1주)	월, 목	신경안과, 사시, 소아안과, 저시력, 성형안과
	김정수	월, 목, 토	월, 화	피부미용, 피부외과, 소아피부질환, 피부알레르기 질환
	서현민	화, 수, 금	수, 목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백반증, 피부외과, 자가면역질환
	이민원	화, 수	금	알лер기질환, 피부알레르기질환, 두드러기, 피부미용
	이승환	월, 수	목	만성종이염, 난창, 이명, 어지럼증, 인공와우이식
이비인후과	정진혁	화, 금	수	부비동염, 비종격질환, 코막힘,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코성형
	지용배	월, 목, 토(3주)	화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정재호	금, 토(1주)	월, 수	어지럼증, 난청, 이명, 중이염
	박우성	목	화, 금	비부비동염, 비종격만곡증, 알레르기비염,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이윤재	수, 토(4주)	월, 금	비부비동염, 비종격만곡증, 알레르기비염,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엄지훈	화, 토(2주)	목	이과, 두경부질환 및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비뇨의학과	최홍용	화, 목	수	결석, 전립선질환, 요실금, 비뇨기종양
	문홍상	수, 토(3주)	월, 금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이승욱	월, 금, 토(1주)	화	복강경수술, 종양, 남성과학
	김규식	월, 토(2,4주)	목	결석, 소아비뇨기질환
재활의학과 발걸음클리닉▲ 관절재활 클리닉●	장성호	월, 금, 목▲	월, 수	근골격계재활, 스포츠의학, 노인의학
	한승훈	화, 목	화, 목, 금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요통, 오십견, 관절염), 스포츠 의학, 뇌신경재활, 삼킴장애
치과	박재현	월, 화, 수, 토(2주)●	목●, 금	일반 재활의학과질환, 근골격계재활, 운동치료
	박원희	월~목, 토(2,4주)	수	보

저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안전동력입니다

AM 7:00

김경진 기능원의 시간

면역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는 새 것이 아니라 멸균이 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중앙공급실은 원내에서 사용하는 4만 여종의 의료기구를 매일 수거하고 세척하며 살균하는 일을 합니다. 때문에 저의 하루는 오전 7시부터 시작되어 쉼새 없이 돌아갑니다. 스테인리스 소재의 수술 도구부터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까지, 환자에게 닿는 모든 기구를 사용 전에 멸균하여 2차 감염의 위험을 낮춥니다. 멸균기에서 나온 기구들도 검수과정을 거친 후에야 병동으로 내보낼 수 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위험으로부터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앙공급실이 있기에 오늘도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안전합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